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75.42 (-15.58)	822.43 (-2.11)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3.225 (+0.005)	1334.50 (+8.20)



국내외 '韓 성장률 전망' 일제 하향

딜레마 빠진 경제정책 1% 초반 성장도 위태

“2023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보더라인(borderline·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올 상반기의 중반에 들어선 지금,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과 달리, 수출과 투자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부진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하반기까지 1%대 초반 성장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온다.

◆ KDI, 韓 경제성장률 1.8%→1.5%

14일 주요기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5%로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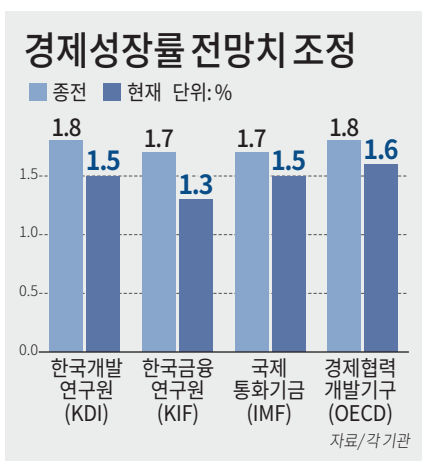
주요기관, 성장률 1%대 중반 전망
中 회복 지연, 美 경기침체 우려
재정적자·고물가로 대책 제한적

KDI뿐 아니라 국내 외 경제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내리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1.7%에서 1.3%로 하향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7%에서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에서 1.6%로 낮췄다.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0.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외환위기였던 1995년(-5.1%)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폭의 성장률이다.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지난주 국제수지 기자 설명회에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당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 IT 경기 회복 시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지난 2월 전망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어 오는 25일 수정경제전망 발표 때 경상수지 전망치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성장률 하향조정, 수출·투자 부진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이유는 수출과 투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소비심리가 회복되며 민간 소비는 확대되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경기과 주택경기가 둔화하면서 투자도 부진한 상태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현황을 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년전과 비교해 10.1% 감소한 144억8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한데 이어 이달 초순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9.4% 하락했다.

◆ 재정적자에 대외여건악화...뚜렷한 방도 없어

문제는 이러한 경기둔화에도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는 지난 3월 기준 54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적자전망치인 58조2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경기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출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린다.

물가도 둔화되긴 했지만,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 우리나라의 경제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천소라 박사는 “중국경제의 회복이 여전히 중국내 서비스업에 국한돼 투자부진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경제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l15@metroseoul.co.kr

JY, 머스크와 첫 회동... 전장사업 날개 달까

이재용 삼성 회장 美 출장 마무리
테슬라 자율주행 반도체 수주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JY네트워크'를 확대했다.

14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다. 이 회장이 머스크 CEO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일론 머스크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7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반도체를 만든 바 있다. 위성통신을 주요 변화로 하는 6G와 관련해서도 차세대 위성통신 업체 스타링크와 교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머스크 CEO를 직접 만나면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 수주 향방에도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차세대 공정에서 수주를 독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대만 매체 등이 TSMC 수주를 주장했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



왼쪽 두번째부터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칸 부디라지(Karn Budhira) 테슬라 부사장, 앤드류 바글리노(Andrew Baglino) 테슬라 CT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한진만 삼성전자 DSA 부사장.

던 상황, 이번 회동을 통해 삼성전자가 협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부품 사업에서도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높다. 이미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반도체를 생산한 경험을 앞세워 엔비디아와 모빌아이에서도 파운드리 생산 주문을 따내는데 성공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반도체 생산 경험을 토대로 자율주행 카메라 및 S/W 개발 기업 '모빌아이'의 고성능 반도체 위탁 생산 주문을 따내는 등 전장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스트래티지에널리틱스·리서치앤드

마켓 등에 따르면 글로벌 전장 반도체 시장은 내년 4000억 달러(약 520조원), 2028년 7000억 달러(약 9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동에는 이 회장과 삼성전자 DS부문 경계현 사장,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과 함께 삼성디스플레이 최주선 사장이 동행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전장용 디스플레이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디지털 콕핏'을 개발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IT용 OLED 라인을 증설하며 생산 능력을 크게 높이기도 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iuk@

양자·다자 연쇄회담... 尹, 외교전 '슈퍼워크'

加·獨 정상들 G7 방문차 방한
EU·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국 국빈방문과 이달 초 12년 만에 서틀외교를 복원한 한일정상회담과 더불어 잇따른 양자·다자회담을 통해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전후해 한국을 방문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및 우르술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정상외교를 진행한다.

우선 양자회담으로 트뤼도 총리는 16~18일까지 공식 방한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 계기에 트뤼도 총리를 초청한 바 있다.

당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규범

에 기반한 국제체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평화유지 및 해양안보를 포함한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경제적 번영과 경제안보 증진, 공급망·핵심광물·과학기술혁신 협력 및 교역과 투자 촉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에너지안보 지원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보건 및 문화 파트너십 심화 등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에 기초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17일 예정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오랜 우방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 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자유·민주주의·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의 미래 협력 비전 공유 등 양국 관계의 강화 방안의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솔츠 총리도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반도 및 국제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공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야구장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결승 경기에 앞서 구심으로 등장해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이번 솔츠 총리는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양자 방한 이후 30년 만이다.

이어서 22일에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한-EU 정상회담도 열린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김남국 탈당에 대국민 사과...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 /사진 뉴시스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논란 특별감사

▲ 與 민생119, 16일 청소년 마약중독 간담회
▲ 박대출 "포털, 실검 부활 꿈수... '고마워요 이재명' 봐야할지도"



▲ "산자여 따라라" 여·야 정치권, 5월 광주 '참배 행렬' /사진 뉴시스
▲ 정부, 홍성·강릉 산불피해 복구에 808억 투입

햄버거 프랜차이즈, 새 주인 찾기 난항... KFC만 매각 성사

맥도날드 동원산업 M&A 검토
높은 로열티 걸림돌... 계약 불발
버거킹·맘스터치 인수자 찾지 못해
KFC KG그룹, 지분100% 매각

프리미엄 수제버거들이 가세하면서 햄버거 시장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기존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새 주인 찾기가 난관에 부딪혔다. KFC코리아의 주인 찾지만 성사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심사였던 한국맥도날드는 동원산업과 인수합병(M&A)을 검토했지만, 지난 2일 동원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매각절차가 종료됐다.

맥도날드 본사가 제시한 매각가와 동원이 책정한 인수가 각각 5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격차가 상당한 데다 수익성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기준으로 5%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거래 불발 사유로 알려졌다.

당분간 한국맥도날드의 새 주인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



KG그룹은 지난달 KFC코리아 지분 100%를 550억원에 사모펀드 운용사 오케스트라 프라이빗에쿼티에 매각했다. 서울에 위치한 KFC 지점 모습 /KFC

계자는 “몸값 차이도 있지만, 글로벌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계약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며 “영업환경에 관계없이 로열티를 글로벌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4.6% 늘어난 9950억원을 기록했다. 직원점뿐 아니라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매출은 1조1770억원으로

2년 연속 1조원을 넘겼고, 1988년 한국 시장 진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78억원, 당기순손실은 362억원을 기록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실적 공개를 시작한 2019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상황이 지속되면 매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버거킹과 맘스터치는 매각 가격 입찰차를 좁히지 못해 매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버거킹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M&A 매물로 시장에 나왔다가 1년 여만에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매각 철회를 결정했다. 버거킹을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는 당시 버거킹 몸값으로 약 1조원을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연내 매각을 목표로 매각가를 1조원에서 6000억~7000억원 사이로 낮췄지만 결국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유일하게 KFC코리아만 매각이 성사됐다. KG그룹은 지난 4월 KFC코리아 지분 100%를 550억원에 사모펀드 운용사 오케스트라 프라이빗에쿼티에 매각했다. 매각 예상가 1000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KG그룹은 KFC코리아를 500억원에 인수한 2017년부터 글로벌 본사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영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글로벌 운영 정책으로 인한 제약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결국 본사와의 지속된 마찰로 이번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190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KFC코리아는 이번 매각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가맹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오케스트라 프라이빗에쿼티는 글로벌 KFC 브랜드 운영사 암브랜즈를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자로 끌어들였고, 국내에서도 가맹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KFC코리아는 향후 적극적인 가맹 사업을 펼쳐 몸집을 불릴 것으로 전망된다.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의 매각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버거 시장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매물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햄버거가 가성비를 앞세워 소비자를 사로잡았지만, 고물가 시대에 햄버거는 더 이상 가성비 음식이 아니다”라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재료 고급화, 맛의 다양화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패스트푸드’의 이미지가 강해 이미 번신 또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가계예금 1.2兆위안 급감... “소비반등 신호”

(한화약231조)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5개월만에 가계예금 증가세 멈춰
“자산투자, 대출상환 가능성 높아”

중국의 가계 예금이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이후 처음으로 큰 폭으로 줄면서 소비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가계 예금은 1조 2000억위안(한화약 231조원) 감소해 5개월 연속 증가세가 멈췄다. 감소폭으로 보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다. 4월 위안화 예금 역시 4609억위안(약 88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금 급감에 계절적 요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신증권 민명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계예금은 매년 4월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올해는 이전 대비 하락폭이 훨씬 더 가파르다”며 “예금 금리의 하락 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선호와 소비의 반등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가계예금은 작년부터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에서 노동절 연휴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자금성 관광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AP·뉴스시

중국의 신규 예금 규모는 2022년 26조 3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조 6000억위안이나 늘었다. 이 중 개인 신규 예금이 17조 8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7조 9000억위안 급증했다.

작년 소득이 정체됐음을 감안하면 늘어난 예금만큼 지출을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가계 소비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단기에금은 변화가 거의 없고 정기예금만 늘었다는 점에서 불안한 경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 풀린 유동성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자 중국 당국은 예금금리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줄어든 저축이 바로 소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평안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일부는 저축을 소비하는데 썼지만 그런 지출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관리 상품에 투자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돈을 썼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실제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달 2411억위안 감소했다. 중장기 가계대출 감소액은 1156억위안으로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안상미 기자 smahni@

“中, 유럽 배터리 시장 파상공세 韓, 정부 차원 전략적 대응 시급”

무협 ‘EU 배터리 시장 동향’ 보고서
“자금 지원 등 통해 추격 따돌려야”

유럽연합(EU)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 배터리 점유율을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배터리와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배터리의 최대 격전지, EU 배터리 시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1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EU 완성차 회사(OEM)의 배터리기업과의 제휴가 본격화되는 향후 1~2년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로 봤다.

배터리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선제적으로 수반되는 수주 산업으로 완성차 업체별 상이한 요구사항에 맞춰 생산 설비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자금력

과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공장 건설과 수율 확보를 위한 시 운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년 내 수주 경쟁의 결과가 5~6년 이후의 시장점유율을 좌우하게 되므로, 단기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수주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신속한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중국기업과 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자금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 ▲투자 세액 공제의 실효성 강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진흥기금’(가칭)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미·일 안보협력 가속도... 北 대응 협의 귀추

>> 1면 ‘양자·다자 연쇄...’서 계속

한-EU 수교 60주년을 기념으로 이뤄진 한-EU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를 비롯해 보건·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글로벌 현안 공조,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다자외교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워싱턴 선언’으로 체결된 한미 안보 협력 강화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북한 대응 협의도 주목된다.

이밖에 29~30일 양일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이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처음이다.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세계, 이 회장 출장 ‘뉴 삼성’ 이정표 분석

>> 1면 ‘JY, 머스크와...’서 계속

테슬라 전기차 핵심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만큼, 삼성전자 반도체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와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출장에서 이 회장은 바이오·계약, 첨단 ICT, 인공지능(AI), 차세대 모빌리티 기업 최고경영자(CEO) 20여명을 만났다. 동부의 바이오 클러스터와 서부 실리콘밸리 ICT 클러스터를 횡단하며 존슨앤존슨, BM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인과 회동했다. 엔비디아 창업자인 젠슨 황 CEO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만난 인사들은 인공지능(AI), 전장용 반도체, 차세대 통신, 바이오 등이 회장이 직접 삼성의 미래 성장 사업으로 점찍고 육성하고 있는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세계는 이 회장이 삼성의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고 ‘뉴 삼성’ 비전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몸값 내리고 재시동... 주세법 등 규제 완화시 외형성장 기대

나라셀라 IPO 재도전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중소형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와인 업계 1호 상장사가 되려는 나라셀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평가 논란과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한차례 상장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지난달 공모가를 다시 산정하는 등 증권신고서를 수정하고 재도전에 나섰다. 업계 전문가들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와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향후 주세법 개정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시 외형성장이 기대되는 점을 이유로 나라셀라의 상장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반기 코스닥상장 목표 신고서 제출 와인 문화 전파 등위한 상장 추진 미진한 부분 보완·시장 눈높이 반영 공모자금 운영·채무상환 등 사용

◆나라셀라 고평가 논란... 비교기업 변경 및 공모가 수정

지난달 18일 나라셀라는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라셀라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보유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를 비교 그룹에 포함해 기업가치를 책정했다가 비판받고 비교기업군을 다시 선정했다. 새로운 비교기업은 국내에선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 실리콘투, 해외에서는 이탈리아 와인 기업 '이탈리안 와인 브랜드(Italian Wine Brands S.p.A.)'와 이탈리아 와인 유통사 '컴파니아 데이 카라이비(Compagnia dei Caraibi)' 등 3개사다. 나라셀라의 예상 시가총액은 1288억~1545억원으로, 이들 비교그룹 유사그룹 평균 주가 수익비율(PE)에 21.52~34.60%의 할인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나라셀라 관계자는 "와인 문화 전파, 글로벌 대외신인도 제고, 신규 와인 포트폴리오 확대 등을 위해 상장을 추진한다"며 "와인 관련 기업 최초 상장이다 보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장의 눈높이를 최대한 반영해 신고서를 재정비해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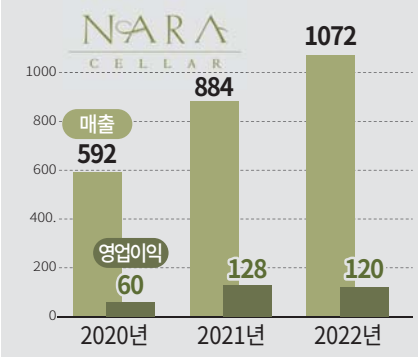
나라셀라는 이달 16~17일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 공모가를 확정한 후 22~23일 일반 청약할 예정이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2만~2만4000원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145만주로 총 공모금액은 290억~348억원이다.

나라셀라는 공모자금을 시설(15억원), 운영(181억원), 채무상환(50억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는 상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프랑스, 미국 오픈마켓(Open Market)을 통한 고가와인 매입에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디지털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에 7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해외법인 운영자금(약 22억원), 리테일 매장 확대(20억원), 신사동 사옥 와인 문화공간 구축(약 19억원) 등에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주 리서치얼음 연구원은 "나라셀라는 5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온·오프라인 와인 플랫폼을 구축해 와인 문화를 선도하며 와인대화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라셀라 국내 와인 수입 업계 5대

나라셀라 실적 추이



체... 연평균 23%의 고성장 기록

나라셀라는 1990년 설립된 와인 수입 전문기업으로 국내 와인 수입 업계 5대 업체 중 하나다. 현재 120여개 브랜드, 100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와인의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누적 판매 1000만병을 돌파했고 '국민 와인'으로 불리는 칠레의 '몬테스 알파'를 독점 판매하고 있다. 미국 나파밸리 프리미엄 와인인 덕혼(Duckhorn)과 케이머스(Caymus)도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현재 판매 채널로 On 채널과 Off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On 채널은 와인을 구입해 바로 마시는 호텔, 레스토랑, 음식점, 도·소매와 와인 직영 매장 '하루일과'로 구성돼 있으며, Off 채널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직영 채널인 '와인타임'과 '와인픽스'가 있다. 주세 차감 전 기준 On채널의 매출은 약 338억원이며, Off 채널의 매출은 891억원으로 Off 채널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나라셀라는 와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3%의 고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10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2019~22년 연평균 23% 고성장세 지난해 매출 전년비 21.2% 증가해 주류시장 환경변화 등에 긍정적 평가 국내 온라인판매 허용시 성장 가속화

대신증권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8%, 25.4% 증가한 1230억원, 150억원으로 예상하고, 순이익도 19.6% 늘어난 107억원으로 전망했다.

박세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강달러 영향으로 매출원가 증가, IPO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3.3% 감소한 11.2%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1월 와인 가격 인상 및 환율 헷징(위험회피) 효과로 작년 대비 원가율 개선이 예상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류시장의 환경 변화... 나라셀라의 성장 가속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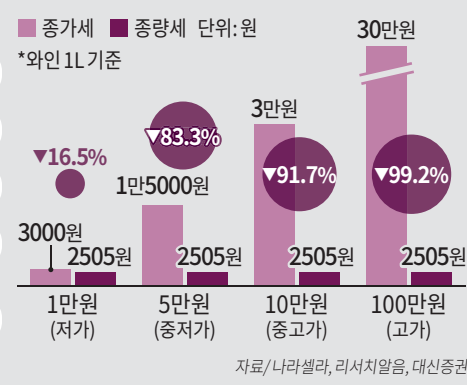
빠르게 성장하는 와인시장에 더해 주류시장의 환경 변화로 나라셀라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주세법 개정과 전자상거래 규제 변화가 와인 수입사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해 적용하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했으나 와인은 여기에 빠졌다. 와인 주세는 주류 가격에 세금을

현행 주류세 방식

세금	부과방식
관세	수입원가 × 15%
주세	(수입원가+관세) × 30%
교육세	주세 × 10%
부가세	(수입원가+관세+주세+교육세) × 10%
총합	수입원가의 약 46.3%

주세법 개정 기대효과



부과하는 종가세로 수입원가와 관세의 합에 3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관세, 교육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모두 합하면 수입원가의 약 46.3%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맥주와 탁주 이외의 타 품목으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주류 가격 대신 양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뀔 경우 가격대가 높

은 프리미엄 와인일수록 주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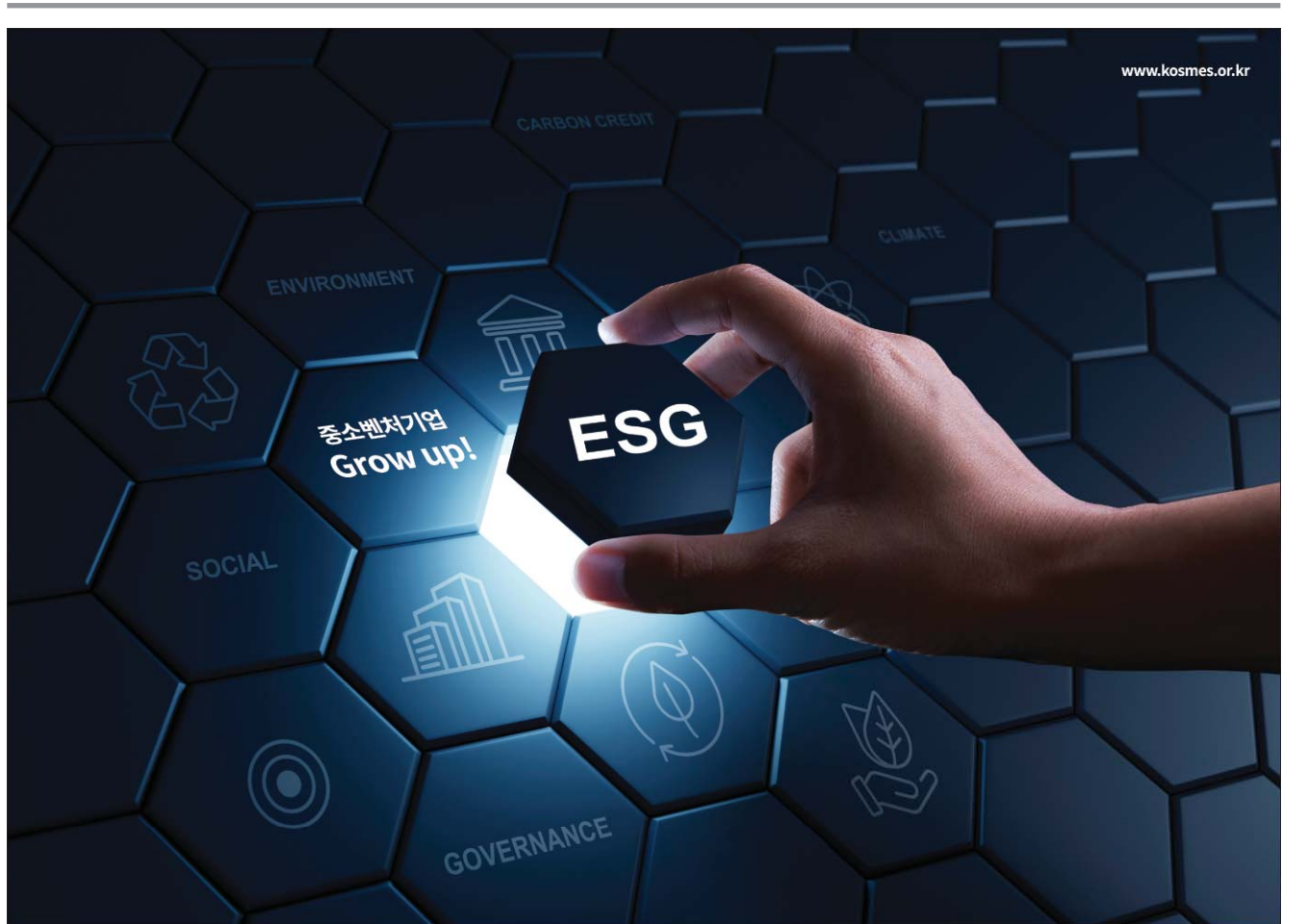
나라셀라의 경우 고가 제품군인 프리미엄, 슈퍼 프리미엄, 울트라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56%로 주세법 개정 시 10만원 중고가의 와인 1L 기준으로 종가세는 3만원이 들지만 종량세로 바뀔 경우 2505원으로 주세가 91.7%나 감소한다.

박세라 연구원은 "종량세로 주세법이 개정된다면 세금 관련 부담이 줄어들어 판매 마진과 판매량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프리미엄 및 고가품 진입장벽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다양한 프리미엄 라인을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시 나라셀라의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문제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20년 4월부터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온라인 선 주문 후 매장 수령 방식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전면 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약 210조원이며 국내 전체 주류시장은 9조5000억원 규모다.

나라셀라는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ESG 역량강화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ESG 심층진단 지원사업

● ESG 심층진단이란?

공급망실사 등 국내외 ESG경영 요구 강화로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ESG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객관적 ESG 수준을 측정하고 맞춤형 ESG 개선과제 발굴을 지원

*역내-외기업 대상 공급망실사 의무지정 초안 발표(21, 22), 공급망실사법 발효(특밀, 23)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객관적 수준 측정) AI와 ESG 전문가를 활용한 신뢰도 높은 경영수준 및 ESG 진단 결과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ESG 수준 인식 객관성 향상
- (역량강화) 심층진단으로 도출된 진단 결과에 기반한 개선과제 추진 및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망실사 대응 역량강화

● 어떻게 운영되나요?

- (진단 대상) ESG 심층진단을 통한 ESG 역량강화 희망 중소기업
- (진단 내용) 시를 통한 경영수준 진단과 ESG 전문가의 기업방문을 통한 ESG 진단을 함께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ESG 역량강화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 055-751-9774

“이청득심 자세로 직원·고객 소통… 금융지주 전환 추진”

(以聽得心)

인터뷰 강신숙 수협은행장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지난해 11월 수협은행의 '포스트 공적자금 시대' 초석을 다질 수장으로 최종 발탁됐다. 서류, 면접 등 수개월에 걸쳐 진행한 수협은행장 선발 과정에서 당당히 '1등'을 한 것. 취임식에서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마부작침(磨斧作針)'을 강조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 '수협 첫 여성행장'… '별의 순간'

강 행장은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44년의 풍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못지않게 뿌듯했던 순간과 감격스러운 순간도 많았던 것 같다”며 “별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했다. ‘별의 순간’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순간’ 또는 ‘운명적, 결정적 순간’을 의미한다.

첫 여성 지점장… 지난해 행장 발탁 ‘긴급예산 지원제’ 도입 등 경영 혁신 ‘임기 내 ‘조달체질 개선’ 이뤄낼 것’

그는 리더의 자리에서 진면모를 발휘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으로 ‘수협은행 오금동 지점장’ 자리에 올랐을 때를 떠올렸다. 여성 최초 지점장 타이틀은 물론 ‘은행의 꽃’으로 불리는 지점장 자리에 오른 것이다. 강 행장은 “지금 생각해 보면 여성에게 승진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신념과 열정 하나로 이를 극복한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당시 폐점 위기에 놓였던 오금동지점을 ‘전국 1등 영업점’으로 만들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수협중앙회로 발탁됐다. 중앙회에도 회원조합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이력이 있다.

강 행장은 “감격의 순간들은 그냥 오지 않는 것 같다. 저 혼자 힘으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사를 전하고 싶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 소통 중심 경영 실천

강 행장은 현장중심 소통을 강조한다. 그가 44년간의 경영 일선에서 느낀 것은 ‘모든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강신숙 수협은행장.

/Sh수협은행

것이다. 행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전국의 영업점과 고객을 방문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강 행장은 현장 경영에 대해 “형식에 치우치거나, 순시(巡視) 같은 부담스러운 활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경영에도 반영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긴급예산 지원제도’ 및 ‘인사 캐스팅제도’ 같은 혁신적인 의견과 건의사항을 경영에 신속하게 반영해 눈길을 끌었다.

직원들에게는 ‘고객의 마음을 얻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을 담은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를 요구한다. 수협은행의 강점은 ‘타행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라고 생각해서다. 강 행장 또한 이청득심의 자세로 직원, 고객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 급변하는 금융시장… 수익구조 다변화 ‘방점’

강 행장은 수협은행의 이익 증대를 위해 ‘조달구조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취임 직후 고비용 조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저비용성예수금 확대 및 조달거래처 다변화 등을 통해 안정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애자일 조직으로 신설한 ‘미래혁신 추진실’에는 ‘조달구조개선단’이 있다. 주거래기업 협약을 확대하는 등 조달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강 행장은 “취임 이후 저비용성예수금 비중이 전년 대비 2%포인트(p)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임기 내 수협은행 ‘조달체질 개선’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수익구조 다변화 또한 생존 키워드

중 하나다. 방카슈랑스, 펀드, 신용카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비이자의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투자금융과 자금운용 부문 역량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 ‘기승전복’ 실천해야 할 때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상환 이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강 행장은 “지나해 수협중앙회가 삼일·김안장 등 컨설팅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비은행 사업다각화 및 금융지주 설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고 했다.

강 행장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기승전복(基戰勝不復)’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한 번 써먹은 성공한 전략은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금융사의 전통적인 성공 공식에 의존해 수익 다각화를 꾀하지 않겠다는 것.

강 행장은 수협은행 금융지주 전환과 관련해 “사업다각화를 위해 미래혁신추진실 내에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비은행사의 매각 제안을 받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관련 정보에 대해선 ‘비밀유지 약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현재 지속적인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비은행사들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M&A가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안에 최소 1개 이상 비은행 자회사 인수를 추진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포석이다.

◆ ‘특별한’ 2023년

강 행장은 올해를 ‘특별한 해’로 지칭

했다.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한 후 맞는 첫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은행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은행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구상을 하나씩 이행할 계획이다. ▲자생력을 갖춘 튼튼한 은행 ▲협동조합은행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 이를 위해 ▲체질 개선 ▲구조 혁신 ▲디지털 전환 ▲리스크관리 ▲실력 향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강 행장의 1순위 목표인 체질 개선은 비이자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해 수익창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구조혁신은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 능동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은 ▲고객경험 ▲사업모델 ▲내부업무 ▲디지털역량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한다. 급변하는 금융권 경영환경과 금융소비자, 디지털 기술 등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공적자금 전액 상환 후 첫 해 비이자 사업 통한 수익 안정화 목표 ‘1개 이상 비은행 자회사 인수 추진’

그는 “올해가 리스크관리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한 해다”라고 했다. 금리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코로나19 유예 여신 등 잠재적 부실 위험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 행장은 “금융감독 당국에 철저히 보고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갖고 있다”고 했다.

◆ ‘행복한 일터 만들 것’

강 행장은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은행장이기에 앞서 직장 선배로서 더 좋은 직장,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고 싶은 바람을 강조했다. 하루 중 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일하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

그는 “직원들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정착시켜겠다”면서 “수협은행의 변화와 혁신을 응원해 달라”고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강신숙 수협은행장이 올해 초 열린 ‘2023 수협은행 비전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신숙 은행장(왼쪽 두번째)이 부산지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부산항만공사 지도소에 올랐다.



지난 3월 강신숙 Sh수협은행장(앞줄 가운데)이 경남지역금융본부 찾아가 간담회를 하고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h수협은행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아무리
멀어도 무조건
달려가는 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 청년들에게
의리있는 편
청년을 위한 금융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내 편이 하나 생겼다

하나금융그룹이 당신의 편에서 하나의 힘이 될게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지도부 리스크’ 털어낸 김기현… 현장 중심 민생행보 박차

(국민의힘 대표)

최고의원 선거 등 당 정상화 속도
아동 복지시설 찾아 빨래 봉사활동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예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아동 복지시설인 ‘이든 아이빌’을 찾아 봄맞이 빨래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힘이 각종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두 달여 동안 설화와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당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일단 수습된 ‘지도부 리스크’는 민생 행보로 털어내고 당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 리더십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당 대표 민생 행보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일환으로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이

다.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119와 함께 진행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가족과 만나, 정책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관련 대책까지 추진한 점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와 발맞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것이라는 셈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간호법 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 차원에서 당은 14일 오후 정부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그동안 내홍을 털고 당정이 원팀으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는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연다. 현장 최고위를 마친 뒤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릴 예정인 5·18 국가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일 지도부 실언으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2일 빨래 봉사 현장도 찾았다. 서울 성동구 관내 아동 복지시설인 이든 아이빌에서 진행한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세탁 봉사활동’ 현장 방문 당시 김 대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우리 사회가 그늘진 곳이 조금 더 밝아지고 아픈 곳이

조금 더 잘 치유돼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당에서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 해야 할 숙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의 빛을 갠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봉사활동에 나선 취지를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당 지도부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태영호 전 최고위원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 준비도 시작했다. 당은 15일까지 공석인 최고위원 선출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전국위원 투표로 치르게 되며 당 안팎에서 많이 거론되는 유력 인물은 호남권 재선인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김남국, 민주당 ‘자진탈당’… 지도부 “징계 무력화 꿈수”

SNS 통해 민주당 탈당 의사 밝혀
“무소속 의원으로 정치공세 맞설 것”
민주당측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뉴스시스

‘돈 봉투 논란’에 이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1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잠시 떠나겠다”면서 전격 탈당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 60억원 어치를 보유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코인세유에 법안 공동 발의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의 도중 코인 거래 의혹 등으로 이해충돌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평소 친서민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혀온 바 있어 민주당이 입는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한 것이 당내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당내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해 “자유 의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추후 민주당의 윤리감찰과 진상조사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탈당계를 내면 당 차원에서 이를 막

을 수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 추후에 복당할 때 제한을 가하는 규정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NS에 “우려한 대로 김 의원은 탈당 수순을 밟았다. 또 다시 자진 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꿈수 탈당”이라며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당정 ‘간호법 제정안’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강민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불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 제정안에 여야 협의는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최영훈 기자



시민과 소통, 변화의 시작!

‘시민중심 더 큰 파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 미래도약 경제도시
- 포용사회 문화도시
- 시민중심 자족도시



원지 | 빠니보틀 | 각류브

진정한 마라맛을 찾아서

마라로드



비트코인, 美·EU 규제 강화에 한주간 10% '뚝'

우리은행 '우리WON뱅크' 8개 시장지표 분석 등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

2개월 만에 2.6만 달러대로 하락
美, 암호화폐 채굴 과세 추진에
점프·제인 스트리트 사업 축소
가상자산 유동성 위기 우려 증가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간 10% 넘게 하락하면서 올 들어 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 중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다시 부상하고 있고, 미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가상자산 업체들이 사업축소를 결정하면서 하락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만68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2일 2만7000달러가 붕괴되면서 지난 3월 17일 이후 약 2개월만에 2만6000달러대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일주일간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올 들어 주간 최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3월 글로벌 은행들의 파산 사태에서 '탈중앙화 금융'으로 주목을 받으며 3만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 은행 팩웨스트뱅크의 예금 급감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상승세를 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년래 최저를 기록해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비트코인이 한때 2만7000 달러가 붕괴됐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대했지만 이번에는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팩웨스트뱅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지난 5일까지 1주일 동안 예금이 9.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팩웨스트 주가는 80% 급락하며 지난 4일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팩웨스트는 SVB, 시그니처은행, 퍼

스트리퍼블릭은행에 이어 다음으로 무너질 은행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 채굴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올해 12월 31일 이후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료를 1년에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세율을 적용해 3년

뒤 최고 3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과세 규모는 10년간 최대 35억 달러(4조6400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이는 채굴업체의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의 대형 가상자산 업체 점프 스트리트와 제인 스트리트가 미국 내 가상자산 사업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점프 스트리트는 미국 내 실물 정산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 조성을 중단하고 제인 스트리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 확장 계획을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시장 유동성이 더 떨어지면서 시장위기가 높아질 것이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는 가상자산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 안정화가 될 시 투심이 살아날 수 있지만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고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창립 12주년' DGB금융, 전 계열사 임직원 화합의 장 마련

/이승용 기자

IM세일즈맨·모의투자대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DGB금융그룹이 오는 17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전 계열사 임직원들의 'ONE DGB' 소속감 확산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DGB금융은 창립 12주년을 기념해 '백 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금융인의 정석'을 콘셉트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개최되는 창립기념식인 만큼 대면 참여를 확대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금융그룹 임직원이라는 소속감과 자부



심을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DGB금융은 금융인의 소양을 주제로 금융인 다룬 축제와 행사를 추구하기 위해 ▲스포츠- '스크린골프대회' ▲영업·PR- 'IM세일즈맨' ▲문화·ESG- 'DGB소장품 특별 전시전' ▲투자- '모의투자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

련했다.

IM세일즈맨은 금융인의 기본이 되는 영업과 PR 관련 경제·금융 요소가 가미된 특정 과제를 통해 임직원의 끼와 지식을 재미난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마련했다.

또한 그룹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애플리케이션 'iM하이' 신규 출시를 창립일과 함께 기념하고자 앱 내 모의투자대회를 앞으로 2달간 진행한다. 스크린골프는 예선·본선을 사전에 운영, 상위실적 4명을 대상으로 창립일 당일 결승을 치른다.

아울러 그룹 소장품 전시전은 지역민에게 문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 예술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5월 한 달간 열린다. 그룹 소장품 40여점과 지역 청년작가 작품 30여점을 전시하며, 청년작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창립일 당일 예술품 구매 행사도 진행한다.

DGB금융 관계자는 14일 "매년 특별한 콘셉트로 진행되는 DGB의 창립기념일 행사를 타금융사나 대기업에서 여러 차례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며 "DGB라는 이름 아래 전 임직원이 함께 'ONE DGB'의 가치와 그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창립일 행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베트남 우리은행 MZ세대 고객 대상 '더치페이' 서비스

우리은행은 베트남우리은행이 더치페이가 일상적인 문화인 베트남 MZ세대를 대상으로 '우리WON베트남' 내에 더치페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WON베트남' 더치페이 서비스는 현지 은행 유사 서비스와 달리 카드 및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 후 바로 편리하게 더치페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더치페이 서비스의 접근 편의성도 높여 '우리WON베트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객에게도 베트남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Zalo(잘로)'와 스마트폰 주소록 연동으로 간편하게 상대방에게 더치페이 요청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더치페이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WON베트남'에서 간편하게 요청금액을 이체하거나, 베트남 금융권 공동 QR 서비스인 VIET QR코드를 이용해 타은행 앱에서도 더치페이 요청금액이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베트남우리은행은 베트남 MZ세대 고객을 위해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더치페이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현지화된 서비스로 베트남 고객에게 편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교보생명, 민원 '업계 최저'... 금융 소비자 권익 신장 결실

VOC 경영지원시스템서 신속 응대
매년 민원 줄어 4년 새 60% 급감

교보생명이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지난해 가장 적은 민원 건수를 기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기준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이 8.4건으로 대형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가장 적었다.

전년 대비 증감률로 봐도 민원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3건에서 지난해 8.4건으로 25.7% 줄었다.

14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 연속 민원이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2018년 보유계약 10만 건당 21.1건이었던 민원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해 8.4건으로 낮아졌다. 4년 새 60.1% 급감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교보생명이 금융소비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교보생명은 예방과 대응,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춰놓고 있다. 특히 '고객의소리(VOC) 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해 민원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

홈페이지 등 디지털 채널에서 제기된 민원은 접수와 동시에 VOC 경영지원시스템과 연동된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 배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곧

바로 응대가 이뤄진다.

중대한 민원 사안은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거쳐 소비자보호 협의회에 상정, 주요 경영진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소보지보호실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이 독립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특징이다.

교보생명은 이와 함께 교육자료 같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 소비자보호기준 등을 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 사례에 기반한 실전 사항을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정기 교육, 완전 가입 실전 다짐 및 전자서명, 영업 현장 완전 가입 컨설팅, 반기별 우수 조직 포상 등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교보생명

을 시행해 금융소비자 불만 요인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했다. /구남영 기자

/이승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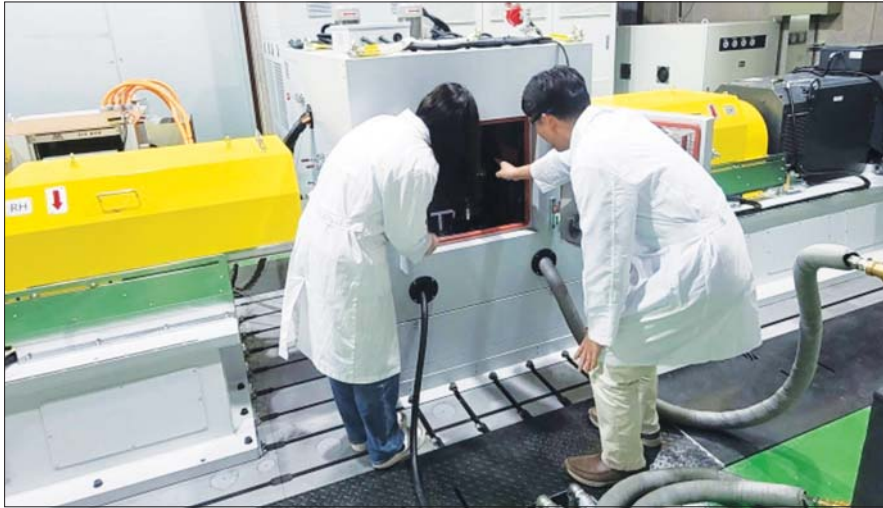
정유업계, 불황 속 영업이익 ↓... 실적 방어는 '유탄유' 한몫

수익 핵심 지표 정체마진 하락
고급화·전기차용 유탄유 개발
수요·공급면서 실적↑환경 조성
영업익, 정유4사 총합 6114억 호조

국내 정유업계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탄유 사업이 실적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이며 실적 방어에 한몫을 해냈다. 정유사들은 유탄유 고급화와 동시에, 늘어나는 전기차 시장에 대비한 '전기차용 유탄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정제마진 하락 속에도 수익 올린 유탄유

1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유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4500억원대로 지난해 동기 4조7600억원에 비해 급감했다. 이는 정제마진 약세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 제품 수요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정유업계 수익의 핵심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지



SK엔무브 연구원들이 PT 다이내모미터 장비 앞에서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전기차 유탄유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난달 기준 평균 3.9달러에 그쳤다. 정제마진의 손익분기점은 4~5달러 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고 지난해와 상황을 비교하기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지난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확산 영향 등 대외적인 이슈로 원유 가격 급등으로 비축유가 수익을 견인했지만 지금은 팔수록 손해인 셈이다"라고 설

명했다. 유가 하락이 지속되는 이상 2~4분기 실적 개선도 쉽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정유사들의 유탄유 사업의 영업이익은 정유4사 총합 6114억원으로 불황 중 호조를 이뤘다. 유탄유 사업은 전방산업인 자동차·선박·항공 등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수익을 올렸다. 올해 1분기 유탄유 사업 부문에서 ▲

에쓰오일은 32.5% ▲SK이노베이션은 21.5% ▲GS칼텍스는 22.3% ▲HD현대오일뱅크는 10%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수요와 공급 면에서도 유탄유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유탄유 사업 호황의 배경이 됐다. 경유가 비싼 가격에 팔리자 정유사들이 유탄유 생산을 줄였기 때문에 유탄유가 유가 하락 속에도 비싸게 팔린 것이다.

◆유탄유, 탄소배출 감소와 연료효율 높이는 효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유탄유는 내연기관차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에 정유사들은 유탄유 사업의 고급화와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SK엔무브는 사명을 바꿀 정도로 고급 유탄유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SK엔무브는 생산 제품의 75%를 수출할 정도로 유탄유 생산 능력이 높은 기업이다. SK엔무브의 유탄유(유탄유의 원재료) 생산 능력은 하루 8만300배럴로

세계 3위권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 효율 그너머로 무브'라는 새로운 슬로건도 내건 SK엔무브는 전기차에 쓰이는 유탄유 판매에도 관심이 많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절연성, 모터 냉각 성능 등이 요구된다.

SK엔무브는 단순한 내연기관 유탄유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더 깨끗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만들어 가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전기차용 유탄유 시장은 내연기관 유탄유 시장과 달리 뚜렷한 선두업체가 없고 고급 기술력이 요구돼 새로운 경쟁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급 유탄유가 제품의 효율을 높이면 유탄유로 움직이는 자동차·항공기·선박 등이 그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핵심 중 하나기에 유탄유는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배출 감소라는 목표를 가진 정유사로서는 유탄유 사업이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꼽히는 이유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포스코, 철강사 최초 스테인리스 신기술 '3관왕'

제27차 국제스테인리스협회 컨퍼런스
삼성전자와 공동개발 통해 탄생 '눈길'
가전용 고강도강 등 기술력 인정받아

포스코가 제27차 국제스테인리스협회 컨퍼런스에서 신기술 부문 3관왕에 올랐다.

글로벌 철강사 가운데 신기술 부문 3관왕을 차지한 것은 포스코가 최초다. 특히 금상 수상 기술은 가전 분야 수요 업체인 삼성전자와 공동개발을 통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포스코는 10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7차 국제스테인리스협회 컨퍼런스에서 신기술 부문 금상, 은상, 동상을 모두 석권했다. 지난해 개최된 제26차 컨퍼런스에서 동일 부문 금상 수상에 이어, 다시 한 번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국제스테인리스협회는 원료 경쟁력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 제품.

확보, 신수요 개발, 친환경 전환 등 스테인리스 업계가 직면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토론했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세계 스테인리스 업계 대표 기구로, 2006년부터 회원사들의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 노력을 제고하자 신기술, 시장개발, 지속가능, 안전

총 4개 부문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신기술 부문에는 4개의 철강사가 총 8개 후보작을 출품했으며 포스코는 금상에 대형 프리미엄 가전용 고강도 430 DP(Dual Phase)강을 비롯해 은상에 모바일 기기용 비자성 고강도 316HN 강, 동상에 에어컨 냉매배관용 스테인리스-구리이종(異種)금속접합용 브레이징 용접 새로운 재료 개발로 3개 상을 모두 석권했다.

금상을 수상한 고강도 430DP강은 포스코 기술연구원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개발한 소재로, 기존 대비 소재 두께를 20% 줄여 경량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50%나 증가시킨 매우 혁신적인 철강 제품이다. 찌힘이나 굽힘에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프리미엄 냉장고 도어 등의 외장재로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책의 수도'에 등장한 LG전자 올레드TV

LG전자가 "세계 책의 수도"에 우아한 올레드 TV를 소개했다. LG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에 있는 도서관 "하우스 오브 위즈덤"에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포제를 전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브제컬렉션 포제는 도서관 1층에 열람 공간에 다양한 인테리어 오브제와 함께 배치됐다. TV 설치 고정관념을 깨는 디자인으로 조화를 이뤄 우아함과 절제된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했다. /LG전자

LG전자가 "세계 책의 수도"에 우아한 올레드 TV를 소개했다. LG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에 있는 도서관 "하우스 오브 위즈덤"에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포제를 전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브제컬렉션 포제는 도서관 1층에 열람 공간에 다양한 인테리어 오브제와 함께 배치됐다. TV 설치 고정관념을 깨는 디자인으로 조화를 이뤄 우아함과 절제된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했다. /LG전자

SK지오센트릭 "순환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나경수 사장, '추즈 프랑스 씨밋' 참석

SK지오센트릭이 순환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은 사장은 오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열리는 프랑스 정부 주최 행사 '추즈 프랑스 씨밋'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나 사장은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재계 인사와 글로벌 기업 CEO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추즈 프랑스 씨밋은 프랑스 정부가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수의 기업 CEO들을 자국에 초청하는 행사로 지난 2018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카콜라, 화이자, 도요타 자동차 등 40여개국 약 270여명의 주요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참석 예정이다.

나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설립을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파트너 기업 CEO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정·재계 관계자에게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사업을 알리며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은 프랑스 기업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기업인 수에즈(SUEZ), 재활용 핵심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루프(Loop Industries)와 함께 유럽 내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약 4억5천만 유로(약 6200억 원)를 투자해 오는 2027년까지 프랑스 북부 북부 생 타볼(Saint-Avold) 지역에 연간 약 7만톤 규모의 재활용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 2019년에는 프랑스 폴리머 업계 1위 석유화학업체 아르케마(Arkema)로부터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을 3억3500만 유로(약 440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전자, 1분기 국내 에어컨 시장 절반 차지

무풍에어컨 시장 점유율 48.6%

삼성전자 무풍에어컨이 시장 점유율 절반에 근접했다.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국내 에어컨 시장 점유율 48.6%를 기록했다.

40% 안팎이었던 예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13년 43.6% 점유율을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45.5%, 2019년에는 37.6%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점유율을 이어왔다. 올 1분기에는 이를 넘어 과반에 근접한 것.

특히 1분기 판매된 에어컨 중에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비중이 전년 보다 2배나 늘었다. 삼성전자가 올해 고효율

에어컨을 크게 늘린데 이어 1등급보다도 10% 효율이 높은 무풍에어컨 갤러리까지 출시한 상황, 에너지 절약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한 셈이다.

무풍에어컨은 쾌적한 냉방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맥스' 냉방 대비 최대 90% 소비 전력을 절약해준다. 삼성전자는 무풍에어컨 갤러리를 모두 1~2등급으로 만들었고, 이보다 효율이 높은 에너지 특화 모델도 출시했다.

가정용 무풍 시스템에어컨은 모든 모델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다. 창문형 에어컨 무풍에어컨 윈도우핏까지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

/김재용 기자

미래차 감성으로 돌아온 국민차... 정숙성에 파워까지 겸비



현대차 '쏘나타 디 엣지'

“이 차가 쏘나타가 맞아?”

현대자동차의 대표 중형 세단 쏘나타를 운전하는 동안 들었던 생각이다. 날카롭고 미래적인 디자인과 폭발적인 가속력은 이전 모델에 대한 기억을 말끔하게 지워냈다.

지난 11일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을 출발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인근 카페까지 왕복 약 87km 구간에서 쏘나타 디 엣지 2.5터보 N라인과, 1.6터보 모델을 체험했다. 부분변경 이전 쏘나타는 메기와 같은 디자인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엇갈렸다. 이 때문에 경쟁 모델인 K5에 판매량 등에서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에 출시한 쏘나타 디 엣지는 날렵하고 미래적인 인상으로 한층 젊어졌다. 특히 전면은 스타리아와 다올 뉴 그랜저 등으로 이어진 현대차 패밀리 룩인 일자형 램프를 적용해 디자인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날렵한 느낌을 살렸다. 후면부도 트렁크 라인 길이를 짧게 가져가고, 하단부 범퍼를 투톤으로 구



현대차 쏘나타 디 엣지 주행 모습.

일자형 램프에 날렵한 디자인
깔끔한 실내, 넓은 수납공간 확보
길어진 축간거리, 2열 폴딩 가능
소음·진동 이슈도 완벽하게 개선

성해 뒷부분에 포인트를 줬다.

실내는 전반적으로 넓다는 느낌이 강하다. 축간거리(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길이)는 2840mm로 이전 모델인 LF쏘나타(2805mm)보다 살짝 앞뒤로 길어졌다. 다올 뉴 그랜저(2895mm)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다. 1열과 2열 레그룸은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헤드룸이다. 키 177cm 성인

이 운전석에 앉으면 머리 위로 주먹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다. 또 2열 폴딩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내비게이션·클러스터’를 적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시인성을 높이고 개방감을 확보했다. 센터페시아는 모던하고 간결한 우드 패턴 가니시가 일자 형식으로 쪽 이리저리 넓고 깔끔한 인상을 준다.

기어 노브는 스티어링 휠 우측 아래에 전자식 칼럼 기어 형태로 이동했다. 중앙 콘솔 공간에서 기어 노브가 빠지면서 깔끔한 실내 이미지와 더불어 넓은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차량의 주행성능을 경험하기 위해 고성능 버전인 2.5 터보 N라인에 탑승했다. 시트가 온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 강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은 ‘그릉그릉’ 배기음을 내며 달릴 준비가 됐음을 알렸다.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차량을 빠르게 반응했다. 고속도로에서 치고나가는 힘은 독일 완성차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었다. N라인 2.5 터보 N라인의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290마력에 최대토크 43kgf·m으로 스포츠카 성능을 낸다.

하체는 단단하다는 느낌이 강했다. 빠른 속도로 와인딩 구간이나 코너구간

을 주행해도 무게 중심을 단단히 잡고 안정적으로 빠져나왔다. 차가 휘청이는 ‘롤링 현상’이나 차량 뒤가 흔들리는 ‘피쉬테일’은 느껴지지 않았다.

기대감이 컸던 것일까. 스포츠모드는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 가속 페달에 빠르게 응답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변화는 크지 않았다.

기차지에서 1.6 터보 모델로 차량을 바꿨다. 엔진 소리는 줄어들었지만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은 빠른 편이다. 실내 정숙성도 뛰어났다. 3년전 출시 당시 소음과 진동 이슈를 완벽하게 개선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1.6터보는 최고출력 180마력에 27kgf·m 토크의 성능을 낸다. 퍼포먼스를 즐기기 보단 패밀리 세단으로 선택하기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

2.5터보 N라인과 1.6터보 모델의 차이는 극명했다. 도심에서는 점잖은 주행을 즐기다가 고속도로나 구불구불한 길이 많은 와인딩 구간에서 편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다면 2.5터보 N모델을 추천하고 있다. 반면 성능보다는 일상적인 용도의 패밀리 세단을 선택한다면 1.6터보 모델을 추천한다.

1.6가솔린 터보의 시작가격은 2854만원, N라인 2.5 가솔린 터보는 3888만원 부터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3000억 시장 베트남 헬스케어 사업 ‘첫 발’

비나 중심 원격케어 플랫폼 활용
당뇨·암 비대면 케어 시범 서비스

KT가 베트남에서 의료 인공지능(AI)과 건강검진센터를 포함하는 종합 헬스케어 사업에 본격 나선다. 베트남 헬스케어 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KT는 올초 설립한 베트남 의료법인 KT 헬스케어 비나(KT healthcare vna)를 중심으로 원격케어 플랫폼을 활용한 암·만성질환 환자 대상의 비대면 케어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KT는 베트남 진출을 위해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인프라를 주로 개발해온 휴레이와 협력하고, 메디플러스솔루션과는 베트남 암환자 케



임승혁 KT 헬스케어사업단 단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벅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헬스케어 사업 진출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채윤정기자

어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 AI 분야에서는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인하대병원과 협력하고 있다. 건강검진센터는 하나로의료재단과 공동 진출할 계획이다.

KT는 하노이대병원과 당뇨와 관련된 질의 응답 등을 제공하는 AI 기반 스크리닝을 개발해 부가 서비스로 탑재했다. SMS 알람을 통해 케어코치를 병행하고 12주 수납 형성 케어 플랜도 제공할 계획이다. 당뇨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만성환자 원격케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당뇨 관리의 핵심인 혈당측정·식이·운동·복약 등 생활습관 형성을 목표로 수립하고 달성하는 방식으로 환자 스스로 당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케어코디는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코칭 기능도 제공한다.

AI 스크리닝 기술은 앱 기반의 간단한 문진만으로 당뇨 고위험군을 선별해내는 기술이다. 당뇨병은 조기 진단을 통해 일상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질

병인 만큼, 이 기술이 당뇨병 조기 발견과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KT는 우선 오는 8월부터 12주간 베트남 현지 병원과 협력해 위암 수술 환자 퇴원 후 관리 및 당뇨 중심 만성질환자 건강검진 관리 2건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KT는 참여환자의 건강 회복 추이와 건강 개선도를 분석해 서비스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위암 환자는 전체 암 환자의 9.8%에 달하는 질환으로, 예후가 나쁘지 않아 이를 대상 질환으로 선정했다.

KT는 또 베트남 국립암센터(K-병원)와 위암 수술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선다. 암 환자 원격 케어 서비스는 케어코디의 케어콜을 통해 암 수술 후유증 및 항암제 부작용을 관리하게 된다. /채윤정 기자 echo@

제주항공
인천~오이타 노선
내달 22일부터 취항

제주항공이 오는 6월22일부터 인천~오이타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지난해 6월 취항한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이후 1년만의 신규 정기 노선이자 제주항공 단독 노선이다.

일본 규슈 지역에 위치한 오이타는 온천으로 유명한 유후인, 벳부 근처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벗어나 있어 유려한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다. 사파리, 테마파크 등이 있어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있는 관광지이며 최근 국내에서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허준원 기자 zelkova@

와이즈넷
IPO·상장 주관사
삼성증권 선정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와이즈넷이 기업공개(IPO) 및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했다.

와이즈넷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기업공개(IPO)와 코스닥 상장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첫 번째 단계로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진행하여 지정 통보를 받았다.

와이즈넷은 삼성증권과 함께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신속하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과 필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상장 이후에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장세주 회장, 8년 만에 복귀... 동국제강 ‘형제경영’ 본격화

장세욱 부회장과 투톱 체제
지주-사업회사 인적분할 통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이 8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지난 12일 열린 동국제강 임시 주주총회에서 장 회장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면서다.

장 회장은 경영 복귀와 관련해 “장세욱 부회장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보조를 맞출 것”이라며 “경험과 지혜를 마지막으로 쏟아 부어 동국제강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미국 등 국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이 8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관계 속 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른 특수 소재 등 부품 분야 첨단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고(故) 장상태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고 장경호 창업주의 손자인 3세 경영인이다. 1978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2001년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2015년 5월 비자금 88억여 원을 해외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를 갚

는데 쓰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그해 6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장 회장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동안 경영은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이 맡았으며 장 회장은 물밑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장 회장은 복역 중에도 비등기 이사로 남아 회장 직책을 유지해왔다.

장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과 그룹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할 지주사를 담당하며 ‘형제 경영’을 전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총에서는 현재의 동국제강을

존속회사인 지주사 동국홀딩스, 사업회사인 동국제강 및 동국씨엠으로 인적 분할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동국홀딩스는 철강·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시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정보 기술(IT)과 물류 등 그룹 연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동국제강이 설명했다. 사업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된다. 계열 사업회사인 동국제강은 최상영 부사장이, 냉연 사업 회사인 동국씨엠은 박상훈 전무가 각각 대표이사를 맡았다.

동국제강 분할 기일은 6월 1일이다. 존속법인인 신설법인 2개사는 각각 6월 16일 변경 상장 및 재상장한다.

/양성운 기자



최상의 사계절 단열필름 콘스탄트

Advanced Ceramic Window Films Konstant

사는곳은 같아도 느껴지는 가치는 다릅니다
주거공간을 업그레이드 하는 최고의 단열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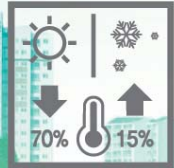
자외선 99%차단



프라이버시 보호



유리 비산 방지



냉난방 손실 감소



주식회사 효성디앤에스 1566-8490

www.konstant.co.kr

깜짝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증권사... SG發 불확실성에 긴장

(1분기)

미래에셋·삼성 등 대형 증권사 매출·순이익 두 자릿수 성장률 SG發 CFD 미수채권 발생 우려 1분기비 2분기 실적부진 예상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예상치 못했던 증시 상승으로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으나 SG 증권발 폭락사태 여파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업계의 실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은 매출과 당기 순이익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2817억원이었지만 시장 전망치(2254억원)보다 25%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30.6% 증가한 6조8654억원이며, 순이익은 15.7% 늘어난 2382억원을 달성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유토이미지

삼성증권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0.99% 증가한 3416억원으로 시장 전망치(2793억원)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거두었다. 매출은 4조41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526억원으로 66.44% 늘었다.

이외에도 키움증권(2924억원), 한국투자증권(2621억원), 메리츠증권

(1998억원), NH투자증권(1841억원), KB증권(1406억원), 신한투자증권(1194억원), 하나증권(834억원) 등은 두드러진 순이익 규모를 달성하는 등 모두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증권업계에선 울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500선, 8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상승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늘면서 증권사들이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26조 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1.8% 증가, 202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2월부터 나타난 코스닥시장 중심의 개별종목 장세가 코스피시장으로 이어지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큰 폭 개선됐다"며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신용거래용자 및 고객예탁금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브로커리지 지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호실적에도 증권업계의

분위기는 밝지 않다. 최근 발생한 SG 증권발 추가 폭락 사태로 CFD 관련 미수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2분기 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잔액은 2조7697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3254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증권사 중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순이었다.

신용평가사들은 CFD 미수채권 물량이 대규모 발생하면 향후 증권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FD 사태로 인해 증권사 고객 이탈 및 실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당장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 채무상환 능력에 중대 변화가 나타날 경우 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 역시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희 나이스신평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태로 증권사가 직면하는 직접적인 위험은 CFD 관련 고객채권 미회수로 인한 실적 저하 가능성"이라며 "사업구조상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회피함에 따른 미수채권 회수 리스크는 국내 증권사가 부담하게 된다. 정확한 손실 금액은 고객 회수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증권사의 대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희연 신한증권 연구원은 "CFD발 손실 우려를 근거로 업권 전반적인 투자심리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미수채권 발생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CFD 신규 가입 중단, 제도 개선 등으로 향후 손익 위축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서울 집값 낙폭 둔화... 용산 11개월만에 반등

아파트값 하락폭 5주 연속 줄어 강남3구 등 규제지역 일제 상승

서울의 선호 지역 아파트값이 속속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매매가격 하락폭이 5주 연속 둔화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시중의 급매물이 상당수 소진되면서 매매수급지수는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05%)보다 0.01%포인트(p) 축소되면서 5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노원구(0.02%→0.05%)가 중계·하계동 중저가나 구축 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난주 포함이었던 용산구(0.00%→0.01%)는 이촌동 대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 전환했다. 용산구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작년 6월 둘째 주(0.01%) 이후 11개월 만이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17%→-0.16%)가 화곡·염창동, 구로구(-0.15%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41.4%가 거래 금액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시스

→-0.13%)는 개봉·구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지난주 포함이었던 동작구(0.00%→0.02%)는 주요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상승 전환했다.

동남권의 경우 지난주 하락 전환했던 송파구(-0.01%→0.08%)와 강동구(-0.01%→0.02%)는 다시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3%→0.01%)와 서초구(0.02%→0.02%)는 주요 단지의 저가 매물 소진 이후 매매가격이 오르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 중이다"라면서도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주요 단지 중심으로 문의가 증가했고 급매물 소진 후 매물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하락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매매수급지수는 10주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8일 기준)는 77.3으로 전주(76.2)보다 1.1p 상승하며 지난 3월 넷째 주(70.6) 이후 계속 회복하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도심권(종로·용산·중구)과 노원·도봉·강북 등이 속한 동북권이 82.6으로 가장 높았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과 구로·영등포·관악이 속한 서남권은 각각 75.8, 73.2를 기록했다. 서북권(마포·은평·서대문)의 경우 72.6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 집값 반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환기자 kdh@



'안양 평촌 초원2단지 대림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현대ENG, 평촌 초원2 대림 리모델링 수주

사업비 총 4687억 규모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양 평촌 초원2단지 대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4687억원 규모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8-2 일대 대림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기존 12개동, 1035세대(지하1층~지상25층)를 13개동, 1113세대(지하3층~지상26층)로 탈바꿈한다. 별동 증축 및 수평 증축을 통해 신축되는 78세대는 일반분양할 예

정이다.

주차 면적도 대거 확보한다. 기존 829대(세대당 0.8대)만 주차 가능했던 주차장은 1692대(세대당 1.5대)까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확대돼 입주민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1기 신도시인 평촌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선정된 첫 사업"이라며 "우수한 사업 조건 등을 바탕으로 입주민 모두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이는 주거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셋째 주 서울 등 전국 4곳서 977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 등 청약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977가구(일반분양 73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 경기 성남시 금광동 '중앙하이츠금광프리미엄', 인천 미추홀구 송의동 '미추홀

루브르송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르더퍼스트',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서 신사1구역주택재건축을 통해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총 424가구 중 전용면적 59~84㎡ 23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역

세권이다. 새절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 있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트릴러 역세권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아산모종2지구 B1블록에서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09㎡, 총 1060가구 규모다. 단지는 아산모종2지구는 아산시 일대의 원도심과 접하고 있어 상업시설과 교육, 문화, 행정 등의 주거 인프라를 공유한다. /김대환 기자

SRI채권 상장 수수료 면제 2년 연장

한국거래소, ESG 투자 활성화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기간이 2025년 6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2025년 6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3년간 사

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2년간 더 연장됐다.

이러한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을 상장하는 기업 약 200여개사는 총 20억 원 가량의 상장비용을 경감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조치로 사회책임투자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과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

“물류 보관부터 컨설팅까지… 글로벌 풀필먼트 만들 것”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아워박스 박 철 수 대표

물류분야에서 창업 10년도 안된 스타트업이 국내외 내노라하는 물류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엔 안정적인 재무구조도 만들고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온-디맨드 풀필먼트 서비스(On-demand Fulfillment Service)를 제공하고 있는 아워박스(OurBOX) 박철수 대표(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박 대표는 피자헛코리아, KFC, 디아지오코리아를 거쳐 AB인베브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을 역임하며 F&B 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특히 그는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구매 및 공급망 관리(SCM·supply chain management) 분야에서 보냈다. 경력이 이렇다보니 박대표가 물류사업에 뛰어든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을 유심히 봤다. 물류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창업했다.”

2015년에 월급쟁이 생활을 청산한 박 대표는 2017년 6월 지금의 아워박스를 설립했다. 그 사이 지인들과의 기투합해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풀필먼트’란 상품의 보관, 포장, 배송, 반품관리, 컨설팅까지 이커머스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토탈 물류 서비스를 말한다.



2017년 창업 후 시스템·사람 집중 투자… 유한킴벌리 주주 ‘호평’ 풀필먼트 서비스 넘어 물류 컨설팅·아웃소싱·SaaS 구독경제 등 사업 “풀필먼트 본업으로 하는 스타트업 성공사례 반드시 만들 것”

아워박스의 사업영역은 풀필먼트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객사 전용 맞춤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사 풀필먼트 센터 효율화 및 고도화 서비스 ▲고효율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물류 컨설팅 ▲직구·역직구 시장 진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컨설팅, 풀필먼트 서비스 ▲서비스형 소프

트웨어(SaaS) 및 파이낸싱을 넘나들고 있다.

박대표는 자신만의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스템’과 ‘사람’을 1순위에 뒀다. 외부에서 전문가들도 수혈했다. 하지만 초기 시스템 개발은 녹록치 않았다. 회사를 시작하고 1년여가 지난 2018년 9월에서야 제대로된 풀필먼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그 사이 버티기 위해 박 대표는 퇴직금을 쏟아부었고, 엔젤투자 등 외부로부터 자금도 조달했다. 아워박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보증기금이 정책자금도 지원했다.

그러다 기회가 찾아왔다.

유한킴벌리가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책임자를 찾아 나서면서다.

“당시 11개 물류회사가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했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고 결국 우리가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수주하게 됐다.(웃음)”

글로벌 합작기업인 유한킴벌리의 요구는 매우 간간했다. 수주 뒤에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벽하게 구축을 끝냈다.

박대표는 “1200개 정도의 SKU(Stock Keeping Unit)를 보관하면서 하루 최대 1만 박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물론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간다. 고객이 유한킴벌리의 자사몰인 ‘맘큐’나 오픈마켓을 통해 오늘 자정까지 제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스템을 통해 월 10만건 이상의 제품을 출고해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아워박스는 사람의 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을 자동화했다. 상자의 바코드를 찍는 일부 작업만 사람이 직접 한다. 에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해 불량률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

유한킴벌리의 요구를 완벽하게 수행한 덕에 아워박스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서 났다. 현재 아워박스가 운영하고 있는 풀필먼트 센터만해도 경기 평택,

군포, 오산(스마트 센터), 곤지암(GC 센터), 평택(신세계푸드 센터), 충북 음성(동원 온라인 센터) 등 여러 곳이다.

풀필먼트 서비스와 시스템 구축, 창고운영 대행 등 아워박스의 고객도 80여 곳으로 늘었다.

신세계푸드, 삼성물산 오투기, 동원디어푸드, 락앤락, 종근당, 연세우유, CJ프레시웨이, 더바디샵, 오비맥주 등이 모두 아워박스의 고객들이다.

박 대표는 “올해는 아워박스가 글로벌 사업을 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제품을 팔기 위해선 지사도 두고 투자도 해야하는데 지사 없이도 우리가 제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풀필먼트를 본업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여전히 목이 마르다. 지난해 기준으로 400억원 가량을 대준 투자자들에게 보답하고, 자본 확충을 통해 사업을 추가 확장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도 계획하고 있다.

‘#MATE’를 중심으로 구독경제도 모색하고 있다. #MATE는 상품관리, 주문수집, 창고관리, 배송관리, 클레임관리 기능을 100% 반응형 웹(Web)으로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패키지 솔루션이다.

아워박스는 지난해 31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56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순항한다면 수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커머스 활동은 ‘경제 활동의 민주화’다. 큰 자본이 없어도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커머스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커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사우디 진출, 중동 K-물류 ‘집중’ 中 주간 개막… 전국서 행사 84건

중동지역 10개 매체 집중 보도 사우디 국가경제 큰 도움 기대

CJ대한통운의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소식이 중동 지역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K-컬처’, ‘K-뷰티’에 열광한데 이어 ‘K-물류’에도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사우디 민간항공청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건강라이프 쇼핑몰 ‘아이허브’의 중동지역 국제배송을 전담할 GDC 구축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 등 관계자 이외에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인 마지드 알 카사비(Majid Al Kasabi), 상무부 차관인 에이만 알 무타이리(Eiman Al Mutairi)씨 등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지난 10~11일 사이 지역 유력일간 알메디나(Al-madina), 사브크(Sabq), 사우디가제트, 아랍뉴스 등

모두 10개 매체가 아랍어와 영어로 관련 내용을 집중보도했다. CJ대한통운의 GDC 투자가 자국 소비자 편의에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우디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이 상품을 소비자가 거주하는 인접국가 물류센터에 보관한 뒤 주문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각 대륙 거점에 GDC를 구축하면 2~3주 이상 걸리던 배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사우디는 매년 전자상거래 규모가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는 중동 지역 최대 이커머스 시장으로 꼽힌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사우디 정부의 2030 계획도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무관치 않다.

CJ대한통운의 사우디 GDC 구축과 관련해 사우디 현지언론의 관심은 다양했다. 현지 유력 일간 알메디나는 한국 기업인 CJ대한통운과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iHerb가 매력적인 사업환경, 소비자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중동 및 아

프리카 사업을 위한 중심지로 리야드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2030년까지 국내 총생산에서 운송 및 물류부문 기여도를 10%로 끌어올린다는 사우디 비전 2030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브크는 소비자 편의 확대에 주목했다. 양사가 8년 협약을 통해 내년 중 중동·아프리카 지역 소비자들에게 통합물류특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전문 글로벌 유통센터(GDC)를 통해 아이허브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을 대표하는 지리적 범위를 함께 연결하기 위해 1만 8000㎡의 면적과 1만 5000개의 일일처리능력을 갖춘 첨단 시설을 구축한다고 조명했다.

대부분 언론들은 한국 최대 물류기업이 글로벌 물류센터를 사우디에 구축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사우디가제트와 아랍뉴스 등은 CJ대한통운과 아이허브의 투자에 대해 사우디 경제의 강점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호 기자

올 ‘다시 뛰는 중소기업’ 주제

전문가들 모여 한국경제 현실 진단

중소기업중앙회가 제35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84건의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매년 5월 셋째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이다. 올해는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이 주제다.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리는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로 올해 행사의 개막을 알린다. 대토론회는 학계, 연구계, 기업계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활력회복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5월 사랑과 감사의 달 사은 행사’(12~21일, 대구기업명품관),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등 중소기업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무엇이 필요한가(16일, 중기중앙

회)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한마당(17일,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현안 토론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인의 가장 큰 축제인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23일 열린다.

특히,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사도 개최한다.

오는 17일 서울 금천구 별빛남문시장에서 열리는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 출범식’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범중소기업계가 참여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장보기와 기부 행사 등을 진행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복합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중소기업 주간이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생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5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 일정 및 장소 등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말레이에 K-푸드 한우 첫 수출 19억 인구 할랄시장 선도 기대

3년간 총 1875톤 수출 예상
한우 산업 글로벌화 교두보
이슬람권 국가 진출 물꼬

할랄(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증이 필요한 권역인 말레이시아에 한우고기가 처음 수출됐다. 19억 할랄 시장에 K-푸드, 한우가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우 현지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에 한우고기를 정식으로 수출하기 위한 제 1호 계약 체결을 기념하고 말레이시아 정부, 현지 유통·외식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보부, 연방농업마케팅청, 농업수의검역청, 이슬람개발부, 국제통상산업부 등 정부 인사, 유통·외식업체 대표, 현지 언론사 등 총 백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우와 K-푸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시켜줬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말레이시아 당국과의 검역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 3월 현지 할랄 인증 기관인 자킵(말레이시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할랄 한우 첫 수출 기념행사'를 마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한우 수출업체 유창열 한다운에프에스엘 대표(왼쪽 두번째)와 말레이시아 한우 수입업체 압둘 아시드 CEO, 연방농업마케팅청(FAMA)고위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아 이슬람개발부)이 국내 할랄 전용 도축장을 최종 승인하면서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한우육 수출 1호 계약을 토대로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 한 해 약 6백 톤(소 약 2500 마리분)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전체 한우 수출실적인 44톤의 13배가 넘는 규모로 한우 산업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할랄 한우의 수출은 이번이 최초로, 19억 인구의 세계 할랄 시장을 선도하는 말레이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할랄 인증이 필요한 이슬람권 국가 진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을 계기로 한우고기가 운송·보관·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 철저

히 해나갈 예정이다. 최초로 전 세계에 판매되는 한우고기에 표시되는 사항이 통일될 수 있도록 수출 계약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지 소매점에서도 한우 수출 공동 브랜드 마크와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약(QR)코드를 제품에 부착해 수출 현지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60년 이상 활발히 교류해온 말레이시아로의 한우 첫 수출이 가시화되는 자리에 현지 정부 인사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K-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한우고기의 수출이 확대된다면, 한우 수급 안정과 농가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metroseoul.co.kr

국내 소부장社 기술개발에 860억 규모 민간투자 나서

CVC 등 37개 투자사가
32개 中企·중견 뒷받침
산업부, 3년간 812억 매칭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등 37개 투자사가 국내 32개 중소·중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유망 기술개발에 860억원 규모의 자본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소부장 투자연계형 연구개발 지원대상으로 32개 소부장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투자 860억원에 더해 향후 3년간 812억원의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매칭 지원해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분야 외에 바이오, 우주항공 등 신성장 분야도 다수 포함돼 해당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제조공정용 멤브레인 제조기술, 메신저리보핵산(mRNA) 전달을 위한 고분자소재 등 기술자립을 지원하고, 우주항공분야는 극저온 추진제 탱크 및 발사체용 합금소재 개발 등의 기술자립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당 민간 투자금액이 2020년 11억9000만원에서 2023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6억80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원된 116개 소부장 기업의 경우 약 1860억원의 민간 투자에 더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 약 2870억원 등 총 473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지원된 116개 기업 중 45개 기업이 약 3000억원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우수 소부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확대 등 소부장 협력생태계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양수산과학기술계 이력 핵심인재 1만명 양성

해수부, 생애 전주기 육성체계 구축

정부가 앞으로 10년에 걸쳐 미래 해양수산과학기술계를 견인할 연구개발 분야 핵심인재 1만 명 양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4일 향후 10년간 미래성장을 이끌 핵심인재 1만명을 양성하고 선진형 연구개발 환경을 갖춘 인력양성 지원기관을 5개 지정하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국내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전문인력은 국가 연구인력

의 1.3% 수준인 9000여 명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이는 세계 해양수산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022년 말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초·중·고 교원 연수 프로그램, 영재고·과학고 학생 대상 경진대회 등의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관련 분야로 진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연구수당 등 지원 확대와 더불어 학점연계 인턴십,

대학연구센터 지원 사업도 신설해 성장 전 주기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와 함께, 첨단선박 등 신산업 분야에서 채용연계형 R&D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출연금에 비례한 청년의 무채용, 기술로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수부 산하기관의 연구개발 채용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과 인재 양성 지원기관 지정으로 전반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차상근 기자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베누와 톨로링 브이그 텔레콤(Bouygues Telecom) 사장이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 소재 브이그 텔레콤 본사에서 양 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무보

무보, 佛 이통사에 5520억 금융 지원

브이그 텔레콤 韓 통신기기 구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프랑스 이동통신사 브이그 텔레콤의 국내기업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3억8000유로(약 552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브이그텔레콤은 약 1500만명의 가입자수를 보유한 프랑스 3위 이동통신사로 무보가 지원하는 보증을 담보로 유럽계 글로벌 은행 방코 산탄데르를 통해 통신기기 구매대금을 용자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인호 무보 사장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 소재 브이그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베누와 톨로링 시장과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및 향후 통신기기·네트워크 장비 수주를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보는 중국 등 스마트폰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한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통신기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지원하고 있다. 앞서 2019년에는 이탈리아 최대 통신사 TIM사에 2억5000

만유로 규모의 통신기기 구매금융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 폴란드 최대 통신사 P4사에 1억유로 상당의 구매금융을 지원했다.

특히, 통신기기는 제조 공정 특성상 중소·중견기업이 조달하는 부품 비중이 커 무보의 통신기기 구매금융 지원 행보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무보는 앞서 지난 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신용투자보험사 연맹' 봄 총회에 참석, 주요국 수출신용기관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글로벌 통신기기 기업들의 참여한 경쟁구도가 두드러진 유럽 시장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선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주요 국가들의 수출신용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공사의 수출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정부, 대기업집단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 예외 추진

고용부-공정거래처, 장애인 고용 ↑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산하도록 출제제한 규제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판매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 77.6%가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저임금도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조건 개선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간 공동출자가 금지

돼 있어 표준사업장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에도 공동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1개사 단독출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우리 가족 모두 마그네슘 충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마그네슘
함량 UP
신제품 출시

신제품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마그네슘 충전이 빠른 마그네슘 제제 마그네슘 함량 UP! Double Action

마그네슘 2400mg (마그네슘오르서 300mg)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마그네슘 충전이 빠른 마그네슘 제제 마그네슘 함량 UP! Double Action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를필 : 2023-1668-002201

포스코 'Pos-H', 규모 7.0 지진도 버틴다

세계 최고 보높이 1500mm서
'특수 모멘트 접합부' 인증
최대 30% 구조부재 물량 절감

포스코의 이노빌트 대표 제품 중 하나인 Pos-H가 최고의 내진성을 가진 강구조솔루션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Pos-H는 고객이 필요한 최적의 사이즈로 제작할 수 있는 맞춤형 용접형 강으로 포스코의 내진용 후판 및 열연으로 제작해 내진성을 강화했다. 주로 대형 건축구조물의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보(樑)와 기둥으로 사용된다.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되면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고, 하중이 큰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건설사의 원가절감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보 대비 높이가 확대된 Pos-H를 대형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부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더욱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송도 포스코 철강솔루션연구소 강구조 실험실에서 실시된 세계 최고 보 높이 1500mm Pos-H보·기둥 접합부 내진 실험 장면(대규모의 지진력이 작용하더라도 보와 기둥의 파단 없이 보가 끝까지 지진에 견디는 것을 볼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28일 한국강구조학회로부터 Pos-H를 이용한 세계 최고 보 높이 1500mm의 보·기둥 접합부에 대해 내진성능 최고 등급인 '특수 모멘트 접합부' 인증을 받았다.

전세계 건축구조 분야의 기준을 만든 미국에서도 특수 모멘트 접합부로 인증받은 보 높이는 최고 1400mm이나, 실제 사용이 가능한 최고 보 높이는 920mm 임을 감안하면,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보 높이에 대해 최고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이다.

내진성능은 건물의 뼈대가 되는 기둥과 보가 지진충격에 견디는 종합적인 성능을 의미한다. 건축물 설계 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와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때 보·기둥 접합부의 성능이 전체 구조물의 내진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보·기둥 접합부는 지진 발생 시 건

물이 안전하게 좌우로 변형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내진성능이 낮은 '보통 모멘트 접합부(Ordinary Moment Frame)', 중간 수준인 '중간 모멘트 접합부(Intermediate Moment Frame)', 최고 등급인 '특수 모멘트 접합부(Special Moment Frame)'로 구분된다. 즉, 내진 성능이 높을수록 연성이 좋아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고, 큰 폭으로 유연하게 변형되는 것이다.

포스코가 이번에 인증받은 '특수 모멘트 접합부'를 건축물에 적용하면, 규모 7.0의 지진에도 안전하며, 내진성능 인증이 없는 '일반 모멘트 접합부'보다 최대 30%까지 구조부재 물량 절감이 가능하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인증받은 접합부에 대해 지난 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 포스코의 특수 모멘트 접합방식은 기존의 복잡한 방식 대비 단순하고 제작이 용이해 공기 단축 및 원가 절감이 가능해 벌써부터 설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우수영관광지 주말 체험프로그램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에서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토, 일, 공휴일 명랑대첩해전사 기념전시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페이스 페인팅, 이순신 장군 칼만들기, 토끼, 강아지 등 동물모양 풍선만들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뇌하는 이순신 탁본만들기 등 3종의 유료 체험을 할 수 있다.

우수영관광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아슬아슬한 바다위를 걷는 스카이워크(무료)와 울돌목 해상을 가로지르는 명랑해상케이블카(유료)가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광양시

백운산 '숲속 캠핑 축제'

광양백운산자연휴양림은 '2023 전라남도 숲속 캠핑 축제'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린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광양시가 주관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의 캠핑인 150팀이 참여할 예정이며, 5월의 백운산 별빛 여행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캠핑 가족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부산시

영유아 급·간식비 확대 지원

부산시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를 확대(총 51억 원) 지원한다.

부산시는 5월부터 정부가 보육료를 통해 지원하는 1일당 영아(0~2세) 1900원, 유아(3~5세) 2500원의 급·간식비와는 별도로 1인당 급·간식비를 1일당 400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인당 급·간식비를 월 6000원(일 300원, 20일 기준) 추가해 지난 4월 기준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 1461개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4만 8000여 명에게 지원비를 제공했다.

/부산=심재만 기자 metrobusan4@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

강영석 상주시장이 현 청사 인근인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를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부지로 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영석 시장은 "오늘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시민 의견수렴, 전문 기관의 객관적인 입지분석 자료 등에 근거해 건립 부지를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로 결정했다"며, "상주시장으로서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이제 통합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주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상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광주,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

월출동에 46.2만㎡ 규모
총 사업비 2671억 투입

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는 북구 월출동 일원에 46만2000㎡(약 14만 평) 규모의 '의료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의료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2671억원(용지비 1188억원, 조성비 897억원, 기타 58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광주의료특화(헬스케어)산업단지를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정책에 맞춰 전략적 디지털정밀 의료도시로 성장할 토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로 이뤄지며, 광주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거

쳐 산업단지 지정 신청, 그린벨트 해제,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특화 산업단지는 지역기업의 영세성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의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산업기술과 융합 고도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하고,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취지를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1546억원, 부가가치 671억원, 소득유발 379억원, 신규 일자리 1200여명으로 분석했다.

또, 광주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입현매립지, '경남 대표 우수습지' 지정

3년간 도비 5000만원 등
보조사업 예산 우선 지원

남해군 입현매립지가 올해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로 신규 지정됐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역 습지 가운데 하나인 남해읍 입현매립지가 경남도 습지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습지로 최종 지정됐다.

입현매립지는 남해읍 입현리 406-7번지 일원에 64만 6864㎡ 면적으로 형성돼 있으며, 남해군 내륙습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특히 내륙습지와 연안습지가 모두 형성된 중요한 생태자원으로, 육상과 해양 환경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습지 생태계로 이뤄졌다.

또 남해바래길 본선 1코스 바래오 시다길과 국가생태탐방로 에코파크길, 해안자전거 2코스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떠올 수 있는 곳이다.



입현매립지 전경. /남해군

지난 9일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습지보전위원회에서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입현매립지가 검은물떼새, 큰고니 등 멸종 위기종들의 주요 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번식지로도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생태 공간임에 주목하고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경남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3년간이며, 이와 관련해 지정 기간 도비 5000만원을 비롯해 자연보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우선 지원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국 최대 수상종합지원단지 준공

생산에서 어업인 지원 기능까지

목포시가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의 준공식과 어업인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함께하고 본격적인 수산업 도약을 예고했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는 총 10개동으로 대지면적 10만2천㎡, 연면적 2만8천㎡, 총사업비 752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시설이다.

목포시와 목포수협이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북항배후부지에 생산·유통·판매·물류·지원 기능의 수산시설을 집적한 이곳은 생산에서부터 어업인 지원 기능까지 국내 최

대 수산종합지원단지로서의 면모를 자랑한다.

목포 수산업의 향후 100년을 이끌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에는 수산물 선도를 책임질 저온위판장은 물론, 어업경영을 지원할 냉동·냉장·계빙·저빙시설, 보급창고, 유통공급시설을 갖췄으며, 유통·판매를 위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와 판매시설, 어업인 편의를 위한 협회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목포수협은 지난해 5월 조합장실을 비롯한 일부 살·과를 이전하고 올해 잔여 업무시설을 전부 이전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지방시대 대전환' 앞장서

'한국주민자치의 날 선포식' 개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2일 도청 동력관에서 전국 주민자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주민자치의 날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장(이철우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지방시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안동시 송하동 주민자치회장 김효훈 씨(49세)가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장 표창을 받았고, 한국주민자치협회가 선정한 15명은 주민자치 분야별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

회(회장 전상직) 주최·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의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이 지사는 행사참석자들과 함께 천년숲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지방시대와 주민자치의 지향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넓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만남을 통해 주민자치 발전과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저와 ‘셀카’ 찍으시면 1년 치 ‘사랑과 행복’ 드릴게요”

팝업 산책

여의도 더현대 서울, ‘힌디스’ 사운즈포레스트와 연계해 열어 굿즈 판매 대금 ‘카라’ 기부 위기 동물구조 활동 등 사운드아트와 사진 찍고 전시 관람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힌디’가 더현대 서울에 사랑을 전하러 왔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현대 서울 5층에서 자사 캐릭터 힌디의 굿즈를 선보이는 팝업스토어 ‘힌디스(HEENDY’S)’를 운영한다.

힌디는 현대백화점이 2019년 흰색 강아지를 모티브로 내놓은 자체 캐릭터로 ‘순간의 행복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행복을 전하는 캐릭터인 만큼 이번 팝업스토어의 굿즈 판매 대금은 전액 동물 행동권 단체 ‘카라’에 기부돼 위기 동물 구조 활동과 350여 마리의 보호가 필요한 강아지 치료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 힌디스는 더현대 서울의 상징인 ‘사운즈포레스트’와 연계해 열



팝업스토어 ‘힌디스’에서 모델들이 굿즈를 소개하는 모습. /현대백화점그룹



더현대 서울 5층 사운즈포레스트에 전시된 15m 높이의 대형 구조물 ‘하트 힌디’. /현대백화점그룹

린다. 현대백화점 측은 팝업스토어에 다양한 힌디의 서사를 부여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색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체 캐릭터 힌디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힌디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운즈포레스트 전체는 힌디가 사는 웨스티 행성의 하트랜드를 컨셉트로 꾸며졌다. 사운즈포레스트 중앙에 선 15m 높이에 달하는 힌디는 하트랜드 행성 랜

드마크 ‘하트 힌디’라는 설명이다.

전설도 만들었다. 천천히 회전하며 관람객들에게 인사하는 하트윈디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일 년치 사랑과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내용이다. 주변은 10여 개의 대형 빨간 하트 풍선이 장식됐다. 하트 윈디 앞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인데, 6층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구경할 수도 있다.

하트 힌디뿐 아니라 팝업스토어는 강렬하게 빛나는 빨간색으로 꾸며 곳곳이 무척 포토제닉하다. 특히 인기를 끄는 ‘하

트풀 멜로디(Heartful Melody)’는 거울과 빨간 하트로 6면의 공간을 꾸며 현실적이지 않은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다만, 바다까지 거울인 만큼 짧은 바지와 치마를 입은 관람객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하트 힌디 구조물 옆에 빨간색의 작은 집으로 만들어져 있다.

‘힌디가 바라보는 세상전(展)’이라는 이름으로 명화 주인공이 된 힌디도 전시한다. 힌디가 지구여행을 하며 감상했던 예술작품을 힌디가 자화상으로 모자른 컬렉션이다. 전시회가 컨셉트일

뿐,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며 즐길 수 있다. 피키픽 포토부스를 설치해 세컷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하트아케이드 게임은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며 참여하면 귀여운 굿즈를 증정한다. 게임방법은 병에 하트 링을 던져 넣으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다.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굿즈는 총 40종으로 대표상품은 ‘힌디와 젤리씨앗 단 인형’, ‘힌디 웨스티 고속충전무드등’ 등이 있다. 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해당 매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 3000점과 당일 구매 고객에게는 더현대 서울 카페 H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음료 쿠폰을 증정한다. 하트랜드와 팝업스토어의 운영기간은 상이하다.

15m 대형 구조물 하트 힌디를 포함해 사운즈포레스트에서 운영하는 하트랜드는 25일까지, 팝업스토어 힌디스는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더현대 서울 3층 K-POP 굿즈 전문샵 ‘에버라인’ 매장에서 힌디와 보이 그룹 ‘아이콘’의 콜라베이션 굿즈 10여 종을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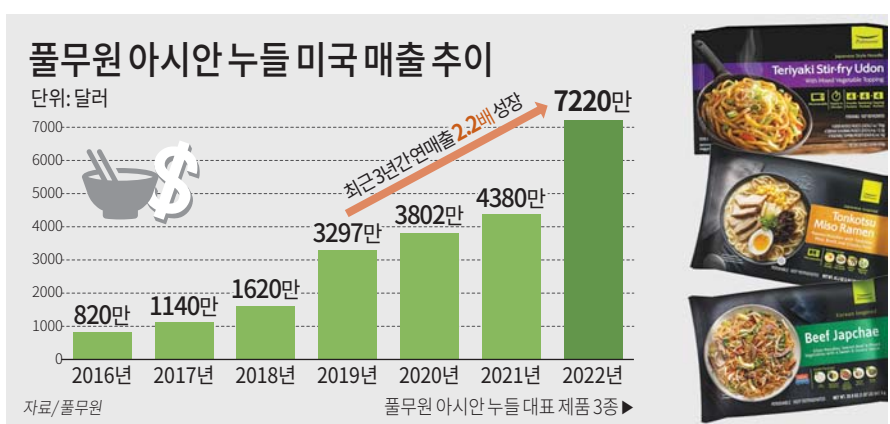
풀무원, 美 생면 매출 65% ↑... 인프라 확충

캘리포니아주 길로이 생면 공장 증설 데리야끼 볶음우동, 돈코츠 라멘 美 전역서 총 180만 개 이상 판매

풀무원이 프리미엄 생면 기술로 만든 아시아인 누들 제품이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초고속 매출 성장을 이어감에 따라 연내 현지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판로 확장에 나선다.

풀무원은 미국법인 풀무원USA가 현지 시장에서 판매 중인 아시아인 누들 매출이 지난해 약 7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풀무원은 저가형 건면과 냉동면이 주류였던 미국 아시아인 누들 시장에 지난 2015년 진출하여 아시아인 레스토랑에서 즐길 수 있는 맛과 조리 편의성을 두루 갖춘 프리미엄 냉장 생면을 출시하고 현지 시장을 개척해왔다. 그 결과 2016



년 820만 달러로 시작한 연 매출을 6년 만에 약 10배로 성장시키며 미국 아시아인 누들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풀무원의 프리미엄 생면 대표 제품은 달달한 간장소스 베이스에 채소 토픽을 곁들인 ‘데리야끼 볶음우동’과 진한 육수에 돼지고기와 야채를 곁들인 ‘돈코츠 라멘’이다. 두 제품은 각각 전자레인

지 3, 5분 간편 조리로 아시아인푸드 레스토랑 수준의 맛을 즐길 수 있어 미국 현지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데리야끼 볶음우동’과 ‘돈코츠 라멘’은 각각 지난해 1월과 2월에 미국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진행하는 MVM(월간 쿠폰북 할인 행사) 품목에 한국 식품 기업 냉장 제품으로는 최초로

두 달 연속 선정되어 이 기간 동안에만 미국 전역에서 총 180만 개 이상 판매됐다.

풀무원은 올해 안으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길로이에 위치한 생면 공장의 면과 포장재 설비 증설을 통해 현지 대응력을 높이고 매출을 본격 확대하는 한편, 물류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제고까지 달성하여 현지 아시아인 누들 시장의 주도권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풀무원은 현재 완제품 및 반제품을 국내에서 수출하여 미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아시아인 누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길로이 생면 공장의 증설이 연내 완료되면 빠르게 늘고 있는 아시아인 누들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 효율화를 통한 수익 개선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풀무원 USA는 전통 아시아인 메뉴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신제품 출시와 공격적인 마케팅, 채널 및 판매 영역 확대를 통해 고성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SSG닷컴 ‘뷰티 쓱세일’ 열어 1만명 무료 체험단

SSG닷컴이 1만 명의 뷰티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다.

SSG닷컴은 15일부터 21일까지 ‘뷰티 쓱세일’을 연다. 행사 중 피부 미용에 관심있는 고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뷰티 무료 체험단도 모집한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랩시리즈’,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겔랑’을 비롯한 30여개 뷰티 브랜드의 1만여개 상품을 무상 제공 받으며, 체험 후 솔직한 사용 경험담을 모바일 앱에 리뷰 형태로 등록하면 된다.

체험단 제공 제품에는 SSG닷컴에서 만 만날 수 있는 국내외 유명 뷰티 브랜드의 단독 신상품이 다수 포함된다. 15일 SSG닷컴에 국내 단독 론칭하는 ‘질스튜어트 뷰티’의 향수를 비롯해 국내 종합몰 최초로 쓱닷컴에 입점한 K뷰티 브랜드 ‘힌스’의 블러셔 등이 그 대상이다.

체험단 모집 외에도 SSG닷컴 뷰티 바이어가 엄선한 브랜드 상품을 단독 특가 구성에 제안하는 명품 뷰티 브랜드 워크도 열린다. 상품 구매시 최대 2만원까지 할인 가능한 12% 상품 할인 쿠폰도 발급한다.

자체 라이브커머스 채널인 쓱라이브에서도 뷰티 프로그램 편성을 늘려 일주일 동안 총 5차례 송출한다.

온라인 관계사인 G마켓, W컨셉도 별도의 기획전 페이지를 열고 시너지를 낸다. SSG닷컴에서 준비한 행사 상품을 G마켓, W컨셉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대표 상품을 연동하고, 플랫폼별로 자체 마련한 상품과 특가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마트, ‘수박’ 검수 절차 7단계 강화

2차 추가 선별, 물류센터 검수 등 더해

롯데마트가 판매 수박의 검수 절차를 기존 4단계에서 7단계로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수박은 하우스 재배, 불량 상품 선별, 당도 및 중량 기계 선별, 무작위 샘플링 절차 등 4단계를 거쳐 입고된다. 여기에 롯데마트는 산지 재배 일지 관리, 2차 추가 선별, 물류센터 추가 검수 등 단계를 더했다.

산지 재배 일지 관리는 영호남 지역

상주 상품기획자(MD)들이 모종 종류와 모종 심는 시기, 적정 수확 시기 등을 농장별 관리·작성하는 초기 단계다. 2차 추가 선별은 산지 전문 MD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돌면서 물류 집기에 적적할 때의 수박 외관·꼭지 신선도를 재확인하는 절차다.

물류센터 추가 검수 단계에선 ‘휴대용 비파괴 당도 선별기’가 활용된다. 수박 100개를 무작위 선별해 품질을 매일 확인한다. 7단계 검수를 거친 수박은 현재 전국 매장에 배치된 상태다. /김서현 기자

강남 신세계백, ‘꾸레쥬’ 첫 매장 선택

유통 계약 맺고 올 9월 매장 오픈

프랑스의 럭셔리 브랜드 ‘꾸레쥬(Courreges)’가 올 9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첫 정식 매장을 연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꾸레쥬와 국내 유통 계약을 맺고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세계는 꾸레쥬를 시작으로 올해만 최소 4개 이상의 업선된 수입 패션 브랜드를 신규 확보하며 해외 패션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꾸레쥬는 디자이너 앙드레 꾸레쥬가 1961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한 패션하우스다.

미니스커트의 아버지, 퓨처리즘 아이콘, 스페이스룩 창시자 등의 평을 받고 있다. 2020년 디자이너 니콜라 디펠리체 부임 후 브랜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젊은 감성으로 재해석이 이뤄졌단 게 업계 평가다. 젊은층 접근이 쉬운 가격대 책정 등도 주목 지점이

/김서현 기자 seoh@

대웅제약, 기술수출 1조 돌파... 전승호 “해외공략 박차”

(대웅제약 대표이사)

美 비탈리아바이오사와 계약
신약 후보물질 권리 이전
제약바이오업계 최대 규모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열린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국 생명공학 투자 회사 애디텀바이오의 포트폴리오 회사 비탈리아바이오에 경구용 자가면역 치료 신약 후보물질 DWP213388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웅제약의 올해 기술수출 규모가 이미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제약바이오업계 최대 규모다. 회사측은 신약 후보물질이 상당한 기술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자사가 체결한 3건의 신약 및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 규모가 1조162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기술수출 계약 중에서 단일 기업 기준으로 대웅제약이 맺은 기술수출 금액은 동종 업계에서 최대 규모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열린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국 생명공학 투자 회사 애디텀바

이오의 포트폴리오 회사 비탈리아바이오에 경구용 자가면역 치료 신약 후보물질 ‘DWP213388’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로열티 수익을 제외한 계약 규모만 4억7700만 달러(약 6391억원)에

달한다. 임상 1상 전 단계인 신약 후보물질로는 상당한 기술가치를 인정 받은 것이다.

이번 계약에는 DWP213388 외에도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2개의 기술이전이 계약 옵션으로 포함

돼 있다. 옵션권이 실행될 경우 국내 제약회사의 다중 파이프라인 자가면역치료제 기술수출 중 최대 규모로 올라서게 된다.

DWP213388은 은 B세포, T세포 등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표적 단백질인 브루턴 티로신 키나아제(BTK)와 인터루킨-2-유도성 T-세포 키나아제(ITK)의 이중 표적을 저해할 수 있는 계열 내 최초 신약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올해 1월 영국 씨에스파마슈티컬스(CSP)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베르시포르신(DWN12088)’ 중화권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베르시포르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지난해 임상 2상 승인과 패스트트랙 품목 지정을 받은 신약이다. 계약규모는 3억3600만 달러(413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에는 국내에도 갓 시판된 SG

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의 중남미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기술료를 포함한 8436만 달러(1100억 원)로, 이는 지난 5년간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중남미 국가에 수출한 파이프라인 중 최대 규모다. 대웅제약의 나보다 중남미 수출로 인연을 맺은 목사8(Moksha8)이 내년 하반기 브라질 및 멕시코 현지 판매를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미국의 많은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들의 글로벌 기술수출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연속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기술수출하며 현지에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신약 개발과 수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해외에서 직접 뛰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종근당바이오, 반려동물 유산균 판매 1위

라비벳, 시장점유율 24% 기록
15억 CFU 이상 유산균 보장



종근당바이오 라비벳 반려동물 유산균 영양제 4종.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제약사 중 종근당바이오가 독보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종근당바이오 라비벳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가 조사한 국내 반려동물 유산균 영양제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유로모니터의 ‘2022 국내 펫 영양제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 규모는 224억원이다. 유로모니터와 종근당바이오의 조사에 따르면, 이 중 유산균 영양제 시장은 68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바이오 라비벳은 반려동물 유산균 영양제 시장점유율 24%를 기록하며,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반려동물 유산균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 라비벳과 2위 브랜드와의 점유율 차이는 5.3% 포인트다.

라비벳은 종근당바이오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반려동물 전용 유산균 브랜드다. 특허 기술인 프롤린 공법을 사용해 유산균을 생존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 내 15억 CFU(균총 형성 단위) 이상의 유산균을 보장한다. 장 건강은 물론, 피부, 관절, 구강, 비뇨기 건강까지 케어가 가능하다.

종근당바이오 라비벳 브랜드 매니저는 “라비벳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인체용 건식 기준에 맞춰 전 성분뿐 아니라 기능성 성분 함량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로 많은 반려인들이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조영주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활성화



조 교수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국가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 사업이 순항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알레르기 질환의 올바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알레르기내과 조영주 교수(사진)가 지난 9일 열린 ‘2023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알레르기 질환자를 조기에 선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교수는 2020년부터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세경 기자

‘스위트홈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참가비·출연금 한국심장재단 후원
대상엔 500만원 전자제품 교환권



13일 전남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열린 ‘스위트홈 제26회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에서 (주)오뚜기 황성만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취오뚜기는 전남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스위트홈 제26회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스위트홈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총 3000여 가족, 1만2500여명이 참가한 대한민국 최대 요리축제로 요리를 통해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하고 ‘스위트홈’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전년(50개팀) 대비 참가자 규모를 2배 늘려 총 100개팀이 참여해 한식·양식·중식·일식 등 열린 요리 경연을 펼쳤으며, 참가자 대표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위해 요리대회 참가비에 행사를 주최한 취오뚜기의 출연금을 더해 총 600만원을 한국심장재단에 전달했다.

이날 팽팽한 경쟁을 뚫고 대상인 오뚜기상의 영예를 안은 박범균 가족에게

다. 올해 신설된 특별상을 받은 5개팀에는 총 100만원 상당의 오뚜기물 쿠폰을 지급했으며, 300만원 상당의 홍콩여행 상품권이 걸린 행운권 추첨 행사도 이어졌다.

요리 경연 외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에는 ‘제1회 오뚜기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OIF)’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오뚜기 제품을 시음·시식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존’ ▲엘로우즈(Yellows) 옷놀이, OTTOGI YELLOW 페인팅 등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존’ ▲엘로우즈 애드벌룬으로 꾸며진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서울랜드 일반 방문객들도 함께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또한 취오뚜기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심장병 완치 어린이와 가족을 초청, 어린이 요리교실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꿈과 희망을 선물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섬, 신명품 브랜드 발굴·변화 나서

무이·툼그레이하운드·폼 등
자체 편집숍 강화하기로

는 남성 전문 매장을 확대 중이다. 톼그레이하운드는 지난 3월 현대백화점 교점에 남성 전문매장인 ‘툼그레이하운드 맨’의 첫 매장을 선보인 뒤, 더현대 서울과 더현대 대구 등 7개 매장을 연이어 오픈해 총 8개의 남성 매장을 열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무이(MUE)·툼그레이하운드(TOMGREYHOUND)·폼(FOURM) 등 자체 편집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섬의 대표 편집숍 ‘무이’는 바잉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명품 브랜드 발굴에 적극 나선다. 2004년부터 럭셔리 콘셉트 스토어로서 신명품 브랜드를 발굴, 육성했으며 랑방, 아워레가시, 가브리엘라 허스트 등이 무이를 통해 소개됐다. 무이는 지난 4월부터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를 활용해 영국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에르담’의 2023 프리폴 컬렉션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미하라 야스히로’의 컬렉션도 올 하반기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내 팝업 공간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 패션 편집숍 ‘툼그레이하운드’

편집숍 ‘폼’은 브랜드 포트폴리오 고급화와 카테고리 다변화를 목표로한다. 럭셔리 여성 편집숍 ‘폼 스튜디오’는 전체 브랜드 수를 지난해 대비 33% 늘어난 1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남성 전문 편집숍 ‘폼 라운지’는 패션 상품 비중을 줄이는 대신,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가방, 하이엔드 스카프, 아트 토이 등 다양한 상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며 영국 트렁크 브랜드 ‘글로벌 트로터’가 해외 명품 브랜드와 협업해 선보인 럭셔리 트래블 러기지 라인업 등 다른 편집숍에서 볼 수 없는 브랜드나 컬렉션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김수미

정경순

김서라

뮤지컬

친정엄마

세상에 하나뿐인 내편
가슴 저미는 먹먹한 이름



디큐브아트센터

2023.03.28~06.04

작가|고혜정 연출|김재성 음악감독|허수현 안무감독|김수한 무대디자인|김상민 조명디자인|최신영 음향감독|정호진 영상디자인|박준 소품디자인|권민희 의상감독|김혜민 분장|최기웅 제작무대감독|서정민 무대감독|김모서 무대조감독|이종건 제작피디|안숙녀



NAVER 뮤지컬 친정엄마



INTERPARK 티켓링크

주최

SUK! COMPANY

TV CHOSUN

문의 : 070-4179-1775



금감원-인니 금융감독청, 상호 직원파견 협의

금융감독원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우수직원을 상호 파견하고 양국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상호 직원파견을 위한 합의각서의 협의를 완료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앞줄 세번째) 등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금융감독원



KT-RAPA, 이동통신 단말 검증 시스템 공동 구축

KT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국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 검증 환경 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김병균 상무(왼쪽)와 RAPA 송정수 상근부회장이 이동통신 단말기 검증 환경 제공 관련 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LG유플러스-메타, 숏폼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LG유플러스의 디지털 고객경험혁신을 표현하는 숏폼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양성된다. LG유플러스는 메타코리아와 전략적 디지털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정수현 LG유플러스 Consumer부문장(왼쪽)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한국코카-콜라,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 개최

한국 코카-콜라는 전일 자사 사옥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한 '2023년 코카-콜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양한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자 환경재단, 밀알복지재단,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팀 차범이 한국 코카-콜라와 함께 뜻을 모으고, 장학금 선발 및 수여에 참여했다. /한국 코카-콜라



여경협 남서울지회, 창립 1주년 기념식 열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남서울지회가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갖고 회원들간 결속을 다졌다. 기념식에는 심영숙 지회장(교통한국과 대표)을 비롯한 회원들 150여명 뿐만 아니라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한 여경협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여경협 남서울지회 심영숙 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경협

SK그룹, '썸머 포 더 시티' 참여... 韓 문화행사 이끈다

‘글로벌 스토리’ 문화 프로젝트 적용 ‘현지 이해 관계자 존중·공감 얻어야’

SK 그룹이 올 여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대규모 예술축제와 한국문화 행사를 후원한다. 이는 글로벌 스토리의 전략으로 현지 이해 관계자들의 존중과 공감을 얻기 위해서다.

14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따르면 SK그룹 5개 멤버사(SK E&S, SKC, SK온, SK주식회사C&C, SK에코엔지니어링)가 오는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미국 뉴욕시 링컨 센터가 주최하는 ‘썸머 포 더 시티(Lincoln Center’s Summer for the City)’의 주요 후원사로 참여한다. SK그룹과 함께 미국 현지에서도 우수한 기업들이 후원사로 동참한다. ‘썸머 포 더 시티’ 후원은 SK



링컨센터 썸머 포 더 시티(Lincoln Center's Summer for the City) /SK그룹

의 핵심 경영 전략인 ‘글로벌 스토리’를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인 ‘썸

머 포 더 시티’는 뉴욕시가 자랑하는 대규모 문화 행사다. 지난해에는 30만명 이상의 관객이 비주얼 아트, 음악, 댄스,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겼다.

올해는 특히 전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코리안 아트 위크(Korean Arts Week)’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전통 무용 공연부터 디지털 아트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7월 19~23일 한 주간 이어진다.

록펠러 센터에서는 동시대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개최된다. 영화감독 박찬욱의 사진작품을 비롯해 문성식, 박진아, 이희준, 정하슬린, 정현두 등 현재 한국 예술계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의 현주소와 미래 가능성을

을 세계 무대에 본격소개하는 행사다.

‘썸머 포 더 시티’ 후원은 SK의 핵심 경영 전략인 ‘글로벌 스토리’를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글로벌 스토리’는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윈-윈(win-win)’ 사업 모델을 만든다는 경영전략이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중과 이해를 얻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 추구해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개념이다.

SK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현지에서의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사업에 대한 현지인들의 공감을 얻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삼성, ‘푸른코끼리 비폭력 캠페인’ 1.2만명 성원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참여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진행

삼성이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갔다.

삼성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푸른코끼리 비폭력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푸른코끼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역량 강화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피해 학생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 2월 무리 생활을 하는 코끼리와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따와 명명, 사이버 정글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자라는 뜻이다.

우선 삼성은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도 푸른코끼리 동료로 끌어들이었다. 종전에 함께하던 함께푸른나무재단과 교육부, 사랑의 열매 등과 함께 6자가 예방 교육 활동뿐 아니라 학생 보호와 피해 회복 등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이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찰청은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통해 예방과 홍보 확대 및 지원, 여성가족부는 심리 상담 지원 및 예방 문화 확산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에서 사업 홍보, 푸른나무재단은 교육 콘텐츠 제작과 운영 및 사이버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사랑의 열매는 대외 홍보 및 행정 지원을 맡았다. 삼성은 사업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이 직접 캠페인과 지지서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친사회적 능력 습득을 위한 푸른코끼리 탐험’을 주제로 20개 부스가 마련됐다. 푸른코끼리 탄생과 세계관 소개는 물론 사이버폭력 알아보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등 사이버폭력 위험성과 예방교육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됐다.

청소년 단체와 학교 관계자 및 일반 시민까지 1만2000여명이 참여해 대국민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 3월 진행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한 포스터 및 웹툰, 에세이 공모전에서 우수작품으로 뽑인 14개 작품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청소년과 전현직 교사, 경찰관 등 670여명이 참여해 그림 부문 교육부 장관상에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중요성을 시험 문제로 풍자한 서울 진선여고 3학년 김진솔 양 작품 등이 최종 선정됐다.

/김재용 기자 juk@

건국대 창립 92주년 기념식 성료

경영성과 발표, 근속상 시상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12일 오전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학원창립 9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유자은 이사장의 기념사, 2022년도 경영성과 동영상 발표, 30년 및 20년 근속상 시상 및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자은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가오는 창학 100년에 나라를 세운 대학으로서 ‘제2의 건국’이라는 이정표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장기근속상 수상자는 ▲김양미 공과대학 시스템생명공학과 교수 ▲공종국 KU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장 등 30년 근속상 74명,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박찬일 교수 등 20년 근속상 74명으로 총 148명이다.

/이현진 기자 ihj@

인사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부회장 △전북도민일보 사장 임한 △충청투데이 사장 박신용 ◇감사 △충부매일 사장 한인섭 △중부일보 사장 최윤정 ◇대외협력위원장 △기호일보 사장 한창원 ◇이사 △경남일보 회장 고영진 △영남일보 사장 이승익 △경상일보 사장 엄주호 △전남일보 사장 이재욱 △무등일보 사장 김종석 △충도일보 사장 유영돈 △제민일보 사장 오홍식

부음

▲정옥산씨 별세, 김선경(전북CBS 본부장)씨 장인상 = 14일 0시, 전주시티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16일 오전 9시 50분. 063-274-4444

▲신춘자씨 별세, 이영주·이영옥·이영민·이영석(한국장애인연맹 회장)씨 모친상, 안용녀씨 시모상, 이홍일씨 장모상 = 13일 오후 6시 40분, 제주 초천읍그린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오전, 장지 제주 양지공원. 064-784-4114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통해 유럽 폐배터리 시장 공략

테스-갈프 SBS 구축 업무협약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 싱가포르 테스(TESS-AMM)가 포르투갈 에너지기업과 전방위 협력을 통해 남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전기차 폐배터리 및 전기·전자폐기물(E-waste) 리사이클링 자회사 테스가 포르투갈 최대 종합에너지기업 갈프 에너지(Galp Energia)와 ‘지속가능 배터리 솔루션(SBS)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갈프가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파트너로 테스를 택한데는 테스가 보유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 과정에 걸



토마스 홀버그(Thomas Holberg) 테스 지속가능배터리유틸 글로벌부사장(왼쪽)과 조르지오스 파파드미트리우(Georgios Papadimitriou) 갈프 재생에너지·신사업 부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친 기술력과 노하우, 유럽지역 15곳을 포함해 전세계 23개국 46곳에 걸쳐 구축한 방대한 규모의 글로벌 거점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베리

아 반도 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및 후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파트너십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포함한 남유럽 지역에 거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협약을 교두보 삼아 테스를 통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연계 전기차 충전소,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해상풍력기반 그린수소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홀버그(Thomas Holberg) 테스 지속가능배터리유틸 글로벌부사장은 “갈프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

‘정당한 이유’ 있으면 부정경쟁행위 예외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다른 대부분의 법률이 그렇듯이 기술의 발전과 법률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수차례 개정을 반복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9289호)돼 오는 9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을 약 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변화된 내용을 간략히 짚어본다.

우선,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오인·혼동행위(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와 관련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법에서 해당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별도의 예외규정 등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타인의 상품표지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이를 자기의 상품표지로 사용해 온 경우 등 부정경쟁행위로 일률적으로 의율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의문인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개정 법에서는 해당 각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개정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와 오인·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그리고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당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열거했다.

다만, 상품표지 등을 선의로 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상품표지 등과의 오인·혼동 우려는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개정 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 등의 권리주체에 위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오인·혼동 방지청구권을 신설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 3).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오인·혼동행위에 대해 일

정한 예외사유를 만들면서도 주지성을 갖는 상품표지 등의 보호를 위해 추가로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새롭게 도입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제3항). 이는 부정경쟁행위가 이어져 왔음에도 장기간 권리행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현존하는 법적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을 꾀한 것으로 보이고, 실무자들 역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법무법인 바른

‘진짜 부자’로 보이는 방법



김 서 현 (유통&라이프부)

최근 유통 대표 3사인 롯데쇼핑과 이마트/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이 심혈을 기울이는 카테고리 중에는 ‘신명품’이 있다. 스파(SPA)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 사이에 위치한 신명품은 디자이너의 개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명품 하우스 세컨 브랜드 등을 통틀어 지칭한다.

고객 타겟은 당연히 2030세대다. 과거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들 또한 명품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만 요즘 2030세대는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하는 전통적 명품을 듣기보다는 ‘남들은 모르는’ 고급스러

운 취향을 과시하고자 한다. 샤넬 가방 하나를 듣기보다는 미우미우와 마크제이콥스, 우영미, 다크룸, 아더에러, 아크네 스튜디오 등 명품 하우스의 세컨 브랜드와 디자이너 브랜드를 섞는 것을 좀 더 ‘힙(hip)’하다고 여긴다. 최고급 명품 아이템을 들고 다니면 푼돈 모아 버려다 맘 먹고 하나 사 본 ‘부자 지망생’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다.

우리 사회는 자산과 소득격차가 극심한 양극화 사회로 가고 있다. 노인빈곤도 심각한 문제지만 최근에는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이들의 빈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의 2030세대는 돈이 없다. 이 탓에 일각에서는 이들의 구매력에 대한 기대가 과잉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

르면 2030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5651만원인데, 자산 격차는 5분위 배율이 35.27배에 달한다. 하위 20%의 소득은 1968만원, 자산규모는 27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예상연봉은 세후 1800만원이다. 9억8185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상위 20%가 평균값을 크게 부풀렸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사람이 자신을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는 결핍이 숨어있을 때가 많다. 30여년 전 여성들은 자신이 지혜로우면서도 이성애 무지해 보이길 원했다. 직장을 얻기 힘들고 큰 돈을 벌 수 없어 남성에게 자신을 의탁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2030세대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보이기를 바라는가? ‘진짜 부자’로 보이려는 이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seo@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15일 (음 3월 2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슬픔도 고통도 자기 성장이다. **48년생** 노력에 따라 발전을 가져온다. **60년생** 도박에 돈과 노력을 쏟는 건 무모하다. **72년생** 운이 있으니 주식보다는 청약율. **84년생** 주변에서 권하는 것들이 이롭고 실상은 없는 것들을.
- 37년생** 막연한 희망보다는 작더라도 실천을 해야. **49년생** 사춘기의 경쟁은 후회만 남게 되니 양보를 하자. **61년생** 주변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73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성취된다. **85년생** 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 38년생** 바쁘다고 서두르면 결과 없이 진행만 더디게 된다. **50년생**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해야. **62년생** 신세진 사람이 빛 갈무리 온다. **74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뤄둔 일을 처리. **86년생** 도무지 근거 없는 말들만 무성하다.
- 39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5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감사. **63년생** 사랑타령은 시간낭비며 우울의 결과로 온다. **75년생** 신용으로 신뢰를 얻는 날. **87년생** 뜻이 있으면 결국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 40년생** 집안청소로 주변 환기를 해보자. **52년생** 오후에 교통사고 유의. **64년생** 아직 계획은 보류해야. **76년생** 경력을 믿고 교만해져 부처님 손바닥처럼 얇은 수준이다. **88년생** 세월이 지나고 보면 부모님 은혜가 태산같이 높다.
- 41년생** 평소 겸손함으로 주변으로부터 신망을 얻는다. **53년생** 바쁜 시간은 피해서 일을 보라. **65년생**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먼저 과공 사를 구별해야. **77년생** 이성 문제로 시골시골. **89년생** 하늘이 알아주니 남들도 알아 복을 받는다.
- 42년생** 산행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54년생** 종이 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지 종이 옮겨갈 수는 없다. **66년생**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면 못할 것이 없다. **78년생** 일이 바빠서 서두르다가 차진다. **90년생** 위험한 일을 미리 알아 대비하도록.
- 43년생** 잔소리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55년생**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는데. **67년생** 동료 간에 협조가 필요하니 왕따로 떠돌리지 마라. **79년생** 소자본 창업은 좀 더 꼼꼼하게. **91년생** 물량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뒷걱정이 없다.
- 44년생**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여 돈 자랑 말라. **56년생** 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으나 너무 계산하지 않도록. **68년생** 태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오니 기다려라. **80년생** 선부터 이직은 글썩. **92년생** 자연에서 바람과 밝은 달을 대하여 즐겁다.
- 45년생** 남과 비교되는 일은 사람 사는데 항상 있는 일. **57년생** 과다한 투자는 삼가야. **69년생** 이제 말은 바 일을 열심히 하자. **81년생** 기획실로 발령되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 **93년생** 집을 설계하는데 마음이 맞아 고마운 일.
- 46년생** 증여는 객관적으로 실천하자. **58년생** 부부끼리 잡자는 모습도 싫어진다. **70년생** 술자리가 길어지지 않도록. **82년생** 합리적 비판에 예민해 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94년생** 일반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심경이란다.
- 47년생** 자식이 근면하도록 해야 부모 탓을 안 할 터. **59년생** 힘찬 변화가 있으니 외모에도 조금 신경 쓰도록. **71년생** 한 걸음만 가면 행운이 온다. **83년생** 기술 쪽에 재능이 있다. **95년생** 부모님께서 노년들의 원앙지계(鸞之契)이다.



김상회의四季 풍수, 빌딩풍

풍수는 바람과 물이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바람과 물이 주축이 된다는 말이다. 땅의 생기가 원활한 곳을 명당으로 보는데 바람이 잔잔하고 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곳이 좋다. 생기는 강한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물을 좋아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흘러든다. 바람은 없는 게 좋고 불더라도 약하게 불어야 생기가 살아난다. 도심 거리를 걷다 보면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 있다. 이른바 빌딩풍이 부는 것이다. 빌딩풍은 높은 빌딩에 바람이 부딪치고 갈라지면서 빌딩과 빌딩 사이에 강한 바람이 부는 걸 말한다. 겨울엔 혹독하게 차가운 바람이 몰아쳐서 그 지역을 피해 다니게 만든다. 바람은 단순히 추위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말한 대로 좋은 기운이 살아나는 걸 막아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좋은 터가 아니다. 풍수의 장풍취수(藏風取水)에서 장풍은 바람을 잠재운다는 뜻이다. 생기는 그만큼 바람을 싫어한다. 사무실 건물이 막다른 골목에 자리하고 있다면 좋은 기운이 힘을 쓰기 어렵다. 골목을 타고 온 바람이 나쁜 기운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골목이 좁고 길다면 바람은 더 강해진다. 높은 빌딩에 둘러싸여 있는 사무실도 좋지 않다.

사시사철 불어대는 강한 빌딩풍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며 사업 또한 강풍의 영향으로 발목이 잡힌다. 낮은 주택들만 밀집한 곳에 우뚝 서 있는 건물도 있다. 주변 주택들이 낮아서 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인데 몰아치는 바람을 몽땅 감당해야 한다. 이런 경우 풍살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거하는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좋은 기운을 접해야 건강해지는데 바람은 좋은 기운을 흩어지게 해서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바람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풍수와 관련된 부분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 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2	8	4		
		4			
5		3	9		6
	7			1	
1	9		5		4 2
	5			9	
6		4	2		1
		7			
	3	6	2		

		5	4	1	
		8		2	
2	4				5 8
			9		
1		3	7		9
			1		
5	2				4 7
		6			5
	7	3	9		

고비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정답

4	6	2	1	9	8	5	9	7
8	9	5	9	7	6	4	1	2
1	9	7	2	5	4	6	8	9
7	5	6	8	1	9	9	2	4
2	4	9	5	9	8	6	1	7
9	8	1	4	6	2	7	7	5
9	7	8	6	2	5	1	4	9
6	2	9	7	4	1	9	5	8
5	1	4	9	8	9	2	7	6

2	9	6	1	5	9	7	8	4
1	8	9	4	2	7	9	6	5
7	4	5	6	8	9	1	2	9
5	7	9	1	8	2	9	6	4
6	2	8	7	9	5	4	9	1
9	1	9	2	6	4	5	7	8
8	9	7	5	9	1	6	4	2
4	5	2	9	7	6	8	1	9
9	6	1	8	4	2	9	5	7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스승의 날 돌아왔지만... 아동학대 빙자한 '교권침해' 여전

‘학부모에 의한 피해’ 약 46%
전면 대면 수업 전환 원인
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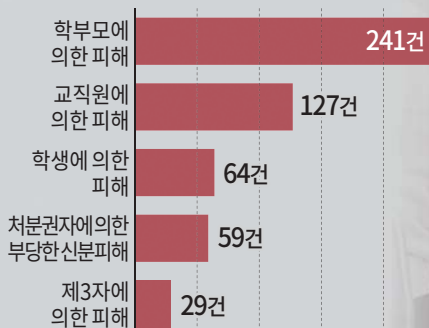
#A 고등학교 모 교사는 수업 시간에 책을 지참하지 않고 엎드려 잠만 자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해당 학생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곤란을 겪었다.

#B 중학교에서도 수업 시작 후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는 학생의 신체 일부를 잡은 교사를 상대로 “아이가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되새기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정한 ‘스승의 날’이 돌아왔지만,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늘어나며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학교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학부모에

2022년 교권침해 주체별 상담 건수



자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아져 241건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가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으며 이뤄진 교권침해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서 교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권침해 최다 주체 ‘학부모’...코로나 이전으로 회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최근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이었다. 2021년 437건보다 무려 83건이 증가한 수치로 최

근 6년 만에 최고치다. 주요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귀했다. 코로나19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총 513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교직원 94건)으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교직원 143건, 학부모 124건)과 2021년(교직원 155건, 학부모 148건)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직원 간 업무, 학사를 놓고 갈등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2022년에는 다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에 육박

하는 241건으로 가장 많아졌다. 이어 교직원 127건, 학생 64건, 처분권자 59건, 제3자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전면 대면 수업 전환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학대 신고’도 증가...교원의 지도 위축·회피로 이어질 우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학생 지도를 문제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교총은 “학생지도로 분류된 상담 건수 125건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 소송을 당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총 241건)의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금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교총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상담 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니면 말고 식의 내용으로 나타났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들의 교육지도 위축과 회피로 이어져 오히려 교육적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국회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교육 관련 법률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학생 56.5% ‘디벗 사업’ 만족... 학부모는 글썽

중1 절반 이상 “공부에 도움 돼”
학부모 반응 갈려... 반대 42.6%

서울의 학생 10명 중 6명 가까이 스마트폰 기기 휴대학습 ‘디벗 사업’에 만족하는 반면, 학부모의 약 40%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기 보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올 2월 14일~3월 10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학생 2584명, 학부모 3468명을 대상으로 ‘디벗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응답자의 56.5%는 디벗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28.7%는 ‘보통이다’, 14.9%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디벗(디지털+벗)은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태블릿PC를 대여해 수업이나 공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 응답자 중 56.4%는 디벗 사업이 ‘공부나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25.7%, ‘도움이 안 된다’는 17.9%로 집계됐다. 디벗 활용 효과로 ‘수업 적극 참여’(62.8점)를, 디벗 사용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활용 변화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58.3점)을 꼽았다. 학생들은 디벗 사업과 관련해 695건의 의견을 냈는데, 그중 215건이 ‘디벗 기기의 성능을 개선해달라’는 내

용이었다. 이어 ‘기기 사용의 과도한 사용 제한 완화’ 106건 순이었다.

학부모 중 42.6%는 디벗 사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 비율은 57.4%였다. 학부모들은 디벗 사업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증가’(63.2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디벗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학부모들은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이용 시간 제한·수업 중 관계 등 스마트기기 관리 프로그램 강화’(35.8%)를 꼽았다. ‘다양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23.4%), ‘활용 교육 확대’(13.8%),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12.7%)가 그다음이었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디벗 사업의 긍정적인 면은 ‘경제적 부담 완화’(64.1점)였고, 부정적인 요소는 ‘비용·관리 책임 부담’(76.6점)이었다.

학부모들이 제출한 디벗 사업 관련 의견은 총 1364건이었다. 이 중 298건이 ‘디벗 회수 및 사업 폐지 요망’이라는 응답이었다. ‘수업 시간에만 사용 등 이용시간 제한 필요’(167건), ‘디벗 기기가 무거워 아이들이 들기에 힘들고 휴대가 불편함’(164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급에 6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시교육청은 2025년 디지털교과서 보급 정책 등에 따라 사업대상을 고등학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공개채용

10개 직종... 총 755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9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할 교육공무원 10개 직종 총 755명을 공개 채용시스템을 통해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번 채용 규모는 조리실무사가 50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특수교육실무사 87명 ▲돌봄전담사(전일제·시간제) 72명 ▲교육실무사(통합) 47명 ▲특

수예듀케어강사 22명 등이다.

지역 별로는 ▲강남·서초(구) 169명 ▲강동·송파(구) 130명 ▲영등포·금천·구로(구) 76명 순으로 대규모 인원을 채용한다. 응시자 거주지제한은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공개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공고의 세부사항 또한 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시험은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실시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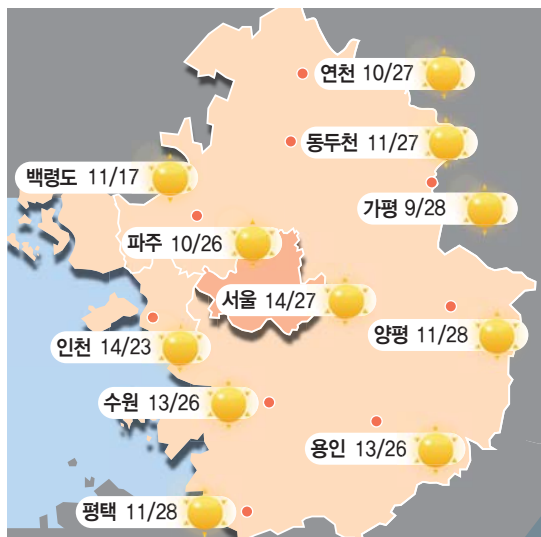
해돋이 / 05:23 | 해질 / 19:34

5월 15일 (월)
음력 : 3월 26일

수도권 날씨

14~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페스타’ 방문객 3명 중 1명 外人

행사 만족 85% 달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 2023’ 방문객의 약 3분의 1은 외국인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서울페스타의 주행사장이었던 종로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서울컬처스퀘어’ 방문자의 32%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이번 행사에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행사 참여

이후 서울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의견도 전체의 76%에 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서울페스타 이후 계절별 대표 축제와 민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 서울 방문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페스타 2023’은 서울관광 재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이 가진 무한한 매력을 꾸준히 관광 상품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G7서 ‘러 침략 규탄·우크라 지원’ 성명 발표 예정” /사진 뉴스스
▲백악관, 이·팔 휴전에 환영...“인명 피해 막고·안정 회복”

▲러 전투기·헬기 4대 추락...우크라 공격 격추 가능성 커
▲젤렌스키 “침략자에 무기지원자 공범”...남아공 대통령과 통화



▲권도형 현직 변호인 측 “무죄 확인” /사진 뉴스스
▲바이든 “부채한도 논의 진행 중...이틀 내 많은 것 알게될 수도”



팝업스토어 '윈디스' "행복을 드려요" L1



Life

대웅제약 기술수출 1조 돌파 L2



27년 교육에 몸 담은 '입시 전문가'

“정답 없는 입시... 한 과목에도 최선 다한 ‘경험적 가치’ 중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

“입시만큼은 모두가 겸손해야 한다.”
입시계를 자그마치 27년간 지켜온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의 목직인 당부다. 그는 입시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지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물음도 질문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비단 학생, 학부모뿐만 교직을 맡고 있는 교사·강사 등 전문가들까지도 예외는 아니다.
수험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모두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입시 정보, 공교육의 현장 정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입시 지도 교사들끼리의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전반적인 교육 불균형,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아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같이 가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로를 배제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도 결국에 공·사교육의 정보를 두루 원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년기부터 시작된 교육과의 인연... 입시계 정착까지

임 대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입시계가 아닌 대기업 롯데였다. 또한,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전공과는 다소 무관한 수학 강사의 길을 걷기도 했다. 이렇듯 연결 지점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엮이면서 결국 입시라는 교육 근거지에 정착했다.

그는 “교육과의 인연이 미스매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생 전반적으로는 늘 가르침과 연관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수학 교육과의 인연은 어린 시절 추억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경북 예천 소재의 시골 중학교에 재학했던 임 대표는 중학교 시절 내내 수학자습부장을 맡았다. 수학자습부장은 수업이 끝난 후 1~2시간 가량 학우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당시 담임 교사는 선생님의 길을 걸으라고 제안할 정도로 역할을 잘 수행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반 전체를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 기억이 교육에 흥미를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추억을 회상했다.

이후 경제학도가 된 그는 역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교육에 특별히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적으로 이어갔다. 임 대표이사는 “대학을 다닐 때 했던 수학 강의도 서울에 막상경한 탓에 긴장감은 있었지만 재미있었다”며 “사실은 경제학 전공이기 때문에 사회를 가르쳐야 하는데 수학을 담당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 인연이 이어져 본격적으로 학원가에 들어섰을 때도 경제학에 맞는 사회 과목이 아닌 수학을 가르쳤다.

인생 곳곳에 교육의 뿌리가 숨겨져 있는 그는 가장 보람찼던 교육 사례로 탈북자의 자녀를 가르쳤던 일화를 꼽았다. 종로학원의 초창기 강사 중에는 ‘수학의 정석’을 집필한 흥성대 상산고 이사장이 있었다. 흥

이사장은 임 대표에게 직접 탈북자의 자녀를 데려와서 가르쳐 달라고 했다. 여건 상 상산고에서는 교육받을 길이 부족했던 학생을 위해 본인 사비로 50%, 종로학원 측에서 50%를 부담해 재수를 부탁한 것이다. 결국 그 학생은 성공적으로 대입을 마무리하고 선생님의 길을 걷게 됐다.

임 대표는 “당시 이런 게 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많이 느꼈다”며 “재수가 고등학교 4학년 과정으로 불리는 이유, 당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못 들어간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 프로필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경영사 과정
- (주)종로학원 대표이사 - (주)종로학력평가연구소 대표이사
- (주)하늘교육 대표이사 - EBS 정책자문위원
- 이코노미스트 자문위원 - 한국경제신문 교육칼럼니스트
- 대입·고입 관련 저서
- 의치대 학년별 로드맵(2016)
- 엄마가 세우는 대학입시 성공전략(2014)
- 이렇게 해야 특목고 갈 수 있다(2007)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대기업 뒤로하고 입시교육에 정착 전공과 무관한 수학강사 길 걷기도 탈북자 자녀 대입 도우며 교육 보람

재수학원, 또다른 ‘제3의 학교’ 형태 1990년대 중반, 학원 대형화 이뤄져 특목고 설명회에 1만명 이상 몰리기도

입시 스케줄 관리 등 학부모 역할 중요 수험생 정보 제공 위해 모두 단합해야

다는 재수 학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체감했다”고 말했다. 재수 학원을 또다른 제3의 학교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그는.

◆27년 전문가, 학원 사업의 산증인

1990년대 중반기에는 학원들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즈음 임 대표도 대학생 시절 강의했던 학원과의 인연으로 학원가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강의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경영 쪽에 집중했다”며 “당시 종로학원이 종로엠스쿨 대형학원 1호의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형 학원으로 전환되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학원계가 상당한 호황을 이뤘다. 특히 1997년 말에 발생했던 외환 위기(IMF)는 학원 대형화의 뿌리가 됐다. 임 대표이사는 “국내 소형 학원들은 타격을 받았지만 대형화로 가는 학원들은 오히려 IMF가 하나의 기회가 됐다”며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았던 학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소규모보다는 대형 중심의 브랜드 학원 선호가 높았고, 프랜차이즈 학원이 300개가 넘는 정도로 학원 사업이 붐이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내신제도의 변화 등으로 입시 쪽에 집중됐던 관심이 특

목고·외고 등에 쏠렸다. 2000년대 초반에는 특목고 설명회가 대학 입시 설명회보다 인기가 많을 정도였다. 임 대표는 당시 대학 입시 설명회에 5,6천명 정도가 모이면 많은 인원이라 평가됐음에도 특목고 설명회에는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았다고 부연했다.

◆입시에서 방심은 금물... 경험적 성취감도 중요

임 대표는 “대학입시에서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입시에 겸손하다면 수준 미달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내려두고 자신 있게 물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짜 말 같지도 않아 보일 수 있는 질문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학부모”라며 “기본적인 스케줄, 핵심 쟁점들은 메모하고, 확인하면서 체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서 접수 날짜를 놓쳤다가, 원서 접수를 학원·학교에서 해준다고 착각해 손놓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입시에서는 불필요한 고민을 제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기가 좋아하는 한 과목이라도 최선을 다해 한 번쯤 노력해 보는 경험과 기록이 참 중요하다”고 경험적 가치를 언급했다. 입시에서 지나치게 상위 대학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현재 학부모 세대들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막바지에 그는 “입시구조에서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최선을 다해 봤다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학생들을 입시 선수가 아닌 교육 대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임 대표이사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NBA 피닉스, ‘파이널 이글었던’ 윌리엄스 감독 경질 /사진 뉴시스
▲김하성, 시즌 4호 홈런 ‘광’...샌디에이고는 패배

▲재정비 마친 오승환, 열흘 만에 1군 엔트리 등록
▲“포체티노, 첼시 지휘봉 합의를”



▲‘이재성 64분’ 독일 마인츠, 프랑크푸르트에 0-3 완패 /사진 뉴시스
▲북한 역대, 2024 파리올림픽 예선전 참가할 듯

SK telecom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if home 에 놀러 와! 이런 집은 처음이지?

나만의 메타버스 공간 ifland 에서 if home 을 만들고 꾸며보고
페이커의 T1 if home 도 방문해 보세요!



꾸며 줘! if home 챌린지

이벤트경품



갤럭시 아이(M2)



아이패드 Air WiFi(64GB)



어플워치 시리즈 8



어플워치 Pro 2세대

- 참 여 방 법
1. ifland(이프랜드) 앱을 설치하고, 나만의 개성을 담아 if home을 꾸민다
 2. 스크린 샷 기능을 이용해 완성된 나의 if home의 인증샷을 남긴다
 3. if home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나만의 if home URL을 복사한다
 4. 내 if home 스크린 샷과 URL을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응모 완료!

이벤트 참여하기



응 모 기 간 2023년 5월 9일(화) ~ 5월 31일(수) 당첨자발표 2023년 6월 13일(화)